



하나도리에



성바로팔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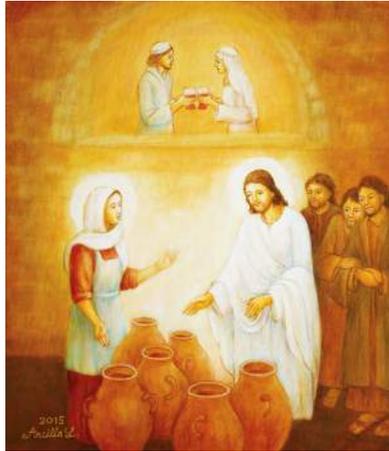
42호

- 표지 그림 이은숙(안칠라)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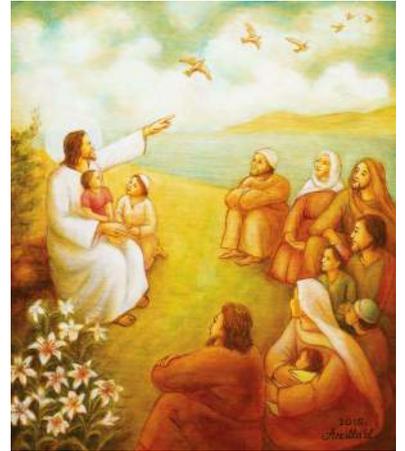
빛의 신비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루카 3,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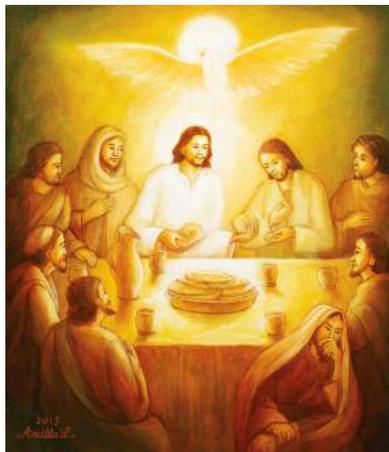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요한 2,1-11)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
(마태 6,25-34)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
(루카 9,28-36)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
(마태 26,17-30)

■ 인사말_ 2		전화용(아녜스) 수녀
■ 통신성서를 하는 기쁨_ 4	통신성서공부는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	오경표(사도요한)
■ 말씀살이 “빛”_ 8	사랑에 대한 작은 깨달음 한 생명이 가고 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조금씩 번져가는 말씀 씨앗 천국이 이곳, 바로 여기에	송수진(희순루치아) 김종관(올리아노) 홍환표(제노) 윤성숙(레지나)
■ 통신성서 가족 이야기_ 17	뒤돌아보지 말자 (1년 활동보고) 면역력, 숲길, 그리고 행복함에 대하여	서정대(안드레아) 고희상(유스티노)
■ 말씀을 더욱 깊게_ 34	말씀을 명어로 진 사람 말씀을 사는 우리들의 시선 아가와 성경 해석	한재호(루카) 신부 신약입문 학생들 안소근(실비아) 수녀
■ 말씀살이 “사랑”_ 68	요셉의 용서에서 느낀 하느님의 사랑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사랑을 태우는 촛불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는 방식	조윤용(효주아녜스) 이순옥(로사) 구경분(아우구스티나) 이승현(마리아) 이영순(소화대레사)
■ 새로 나는 어르신 성경공부 이야기_ 88		
■ 2015년 졸업식 이야기_ 93	하느님을 만나려 애쓴 그 감사한 시간들 중급과정을 마치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최종욱(마누엘) 기정선(가타리나)
■ 교육원 제공, 공부 토틸_ 104		
■ 책으로 만나는 말씀 이야기_ 109	고통 속에서 피어난 신앙 광야,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	박주경(아가다) 김봉수(바오로)
■ 평가자 이야기_ 115	■ 연수회 이야기_ 124	
■ 교육원 소식_ 133	■ 다 함께 읽어요_ 141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 세상의 중심자리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자비’가
자리했으면 하는 희망으로, 최고 어른신인 프란치스코 교황
님께서 반포하신 ‘자비의 해(201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대
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화용(아네스) 수녀

저 역시 믿는 이들이 이 거룩한 초대에 온 마음으로 함께 응답하며 살아간다면 주변의 많은 이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터이고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축복받은 해가 되리라는 생각에 감히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니 교황님과 한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생 여러분이 체험한 자비를 이웃과 나누는 삶의 응답으로 인해 여러분 삶이 더욱더 은혜로운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황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하느님은 진실로 ‘넘치게 자비로우시며’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 우리가 주님 사랑을 알기 위해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이 하느님 은총이 맺은 열매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처럼 하느님께서서는 넘치는 당신의 자비를 모든 시대에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마음의 변화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작품’(에페 2,8-10)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애로움으로 우리를 어

루만저 주시고 은총으로 빚어주시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제에게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이해받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환영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진정 고해소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생명을 되살리시고 믿음을 되돌려 놓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느낄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7장 36-50절(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의 길을 열어줍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죄 많은 여인의 사랑, 아니 그보다 먼저 그 여인을 다가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인은 회개와 기쁨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여인의 입맞춤으로 사랑의 순수함을, 부어드리는 향유로 그분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여인의 행동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곧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과 용서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은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이사 43,25) 그녀는 선하신 하느님께 눈물로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여인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분명히 이 만남의 핵심은 하느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교회가 자비의 증거자가 되라는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자주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영적인 회심으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해는 자비의 성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주님 말씀의 빛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모든 교회가 이 자비의 희년에 새롭게 하느님 자비와 더 풍성한 기쁨을 발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자비 안에서 우리 시대의 모든 남녀에게 위로를 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황님 말씀대로 자비의 희년을 지내는 동안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보살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며 지내봅시다.

통신성서공부는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



오경표(사도요한)·6학년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요한 7,37ㄴ-38)

내가 성경공부를 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적어보고자 한다.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전 나의 신앙생활은, 주일미사나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주보와 매일미사 책의 관심 있는 부분만 읽어보는 정도였다. 가끔 우리 구역 미사봉헌 차례가 되어 제1독서 요청을 받게 되면 해당 본문을 몇 차례 읽어본 후 교우들 앞에서 글자를 틀리지 않고 잘 읽는 것으로 만족하곤 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에 가톨릭 공용 성경을 구입하였으나 한 번도 펴보지 않았고 오랫동안 장식용 책으로만 꽂아두었으니,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필요하면 좋은 구절들을 자주 찾아보면서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지금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성경공부를 하기 전 1년간은,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해방감에 한동안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은 무질서한 생활을 하다 보니 부부간의 마찰도 많아지고 전보다 어려운 생활 여건이 겹쳐 마음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고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늘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던 성경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0년 1월 어느 날,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집에 와서 교중미사 때 나뉘

준 주보를 무심코 읽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마음이 닫혀 보이지 않던 성경공부 안내 문구가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순간 바로 '이게 내가 찾던 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다음 날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에 문의하였다. 담당직원의 친절함 안내로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 구약성경입문 책을 받아 지금의 통신성서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나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큰 전환점이었으며 주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그 깊은 뜻을 조금씩이나마 깨닫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뉴욕 퀸즈 한인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때가 1993년 4월이고 성령의 인도로 6년간의 신구약성경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이 과정을 시작한 때가 2010년 3월이었다. 세례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성경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음을 반성하면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성경공부를 중단 없이 잘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주님께서는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개입하시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에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심을 그때 새롭게 깨달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업적과 은총을 절실히 체험했다.

지난 5년간 성경공부를 하면서 느낀 감회를 묵상해 보면, 교육원의 학과일정에 따라 주어진 교재를 공부하고 진도에 맞춰 성경 본문도 함께 읽어보면서 답안을 작성하고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며 묵상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은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기라 여겨진다. 첫째 구약성경 입문과정을 공부하면서는 교재를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괜히 이 과정을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학습 진도에 맞춰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생각한 것만큼 잘 되지 않아 고민을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려 했으나 본문을 읽어봐도 무엇을 읽었는지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았고 인명, 지명도 생소하여 진도가 나가지 않아 애를 먹었다. '이 많은 분량의 구약성경을 언제 다 읽어보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입체낭송 성경 CD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구입하여 본문을 들으면서 함께 읽으니 훨씬 더 잘 나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성경공부를 시작한 첫해에 신약성경 본문을 두 차례 읽어보면서 많은 영적인 기쁨을 맛보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읽어본 다른 어떤 고전 서적이나 교훈서들보다 나의 삶을 이끌어 줄 금과옥조 같은 말씀들이 많다고 생각되었으며 시간을 내어서 거듭 본문을 읽어보려고 결심하였다.

신약입문과정에서는 이러닝학습을 통해서 신약성경을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는 방법이라 해당 범위를 집중하여 반복학습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잘 잡을 수 있었으나 목상 내용이나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들을 적어보는 기회가 없어 조금은 아쉬웠다.

구약중급과정을 시작할 때는 이 과정의 이러닝학습이 1년 후이나 가능하다 하여 다시 우편학습의 하나인 인터넷학습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성경공부를 하고 싶던 터라 부득이 인터넷학습을 택하게 되었고 어쩌면 시간적인 제약을 덜 받기를 원하는 나로서는 이 방법이 더 적합하다 생각되었다.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들을 적어보면서 주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슴에 새겨두고자 했고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거듭 생각해 보면서 성경공부에 작은 정성이나마 다하고자 애썼다. 특히 각 과제에 한두 번씩 신앙체험 목상을 정리하고 적어보면서는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한편, 신약중급과정을 공부하면서는 처음으로 연수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성장시켜 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 반원 모두가 지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이 많았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늘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는 수녀님, 어려울 때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무려 20년간이나 본당 교리교사를 하고 있다는 어느 자매님, 가정의 온갖 어려움을 통신성서공부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겨내고 있다는 부부, 세례받은 지 15년이 지나도록 성경 한 글자도 안 읽었는데 이 과정 공부를 시작하면서 매년 2회씩 지금까지

10회를 읽었고 20회까지 계속해서 통독하겠다는 어느 한 형제님 등 모두가 말씀에 의지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였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감동하였고 이 과정 공부를 잘 마치고 바로 영성과정 공부도 같이 하자고 다짐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의 성경공부는 하느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더 잘 알기 위한 작은 밑알이라 생각되고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신을 다하여 주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 다짐해 본다. 비록 현세의 삶이 하느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이를 잘 극복하여 조금이라도 더 주님 말씀을 깨닫고 다음 과정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구원계획에 따라 저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난 5년간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달으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당신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오니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에 대한 작은 깨달음



송수진(희순루치아)·2학년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시댁의 가풍을 좇아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같은 종교를 갖길 원했기 때문에 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당에 다녀보니 쉽게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 분위기와 많이 다르고 같이 하는 것보다 개인의 성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느껴졌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많지 않았고 남편도 열심히 신자는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주일만 지키는 그저 그런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이 늘긴 했지만 신앙의 깊이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성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경공부도 하고 레지오 활동이며 구역 일까지 하게 되면서 차츰 묵상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신앙생활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묻어가는 것이어서 저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어제 아들의 견진성사를 준비하며 아이의 유아 세례 대부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로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왔는가 하는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대부님은 친척분의 소개로 알게 된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는 돈 벌러 타지에 가서 살고 있다는 사정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남편의 전근으로 이

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게 되어 다시 대부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그저 잘 있으려니 생각하고 대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잘 지내겠거니 생각하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아 오늘 그곳 성당에 문의하여 집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님의 소식을 여쭙니 소식이 끊겨 연락할 방법이 없고 연락처도 모르며 집에도 오랫동안 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잠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다가 어머니와는 연락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 그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몸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듯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 아이의 안부를 꾸준히 챙겼더라면 이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 대부님을 소개시켜 주셨던 친척 어른신이 우리를 연결해 주셨을 때에 그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셨을까? 혹시 서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셨던 건 아닐까?’ 저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여 말하고 다닌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나와 관계된 이들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다는 자성이 저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저는 바로 가까이 있는 이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변이 그리 좋지 않은 제가 남들 앞에 나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결심이 주님의 인도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생명이 가고 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김종관(올리아노)·3학년

5년 전 외손주 ‘리바이’가 태어날 때입니다. 제 딸 김정주가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6개월이 지날 무렵 초겨울에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염됐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 미국에서도 어린이, 노인, 임산부들에게 예방 주사를 우선적으로 맞혀주었습니다. 이 주사를 맞고 딸아이가 이튿날 새벽 목욕탕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미국인 사위에게 연락을 받은 저는 즉시 아내와 의사인 아들을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딸에게 도착해 보니 이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염했습니다. 딸아이가 쓰러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담당의사가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산모를 하늘나라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배 속의 아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다시 사위가 우리 부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의견은?”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서른넷이고 이미 세 살 난 딸도 하나 있으니 배 속의 아기는 제 어미와 함께 하늘나라로 보내면 좋겠다고 하면서 흐느꼈습니다. 그래... 6개월밖에 안 된 태아라면 설령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할지도 모르니 우리는 사위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결정된 우리의 생각을 담당의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거의 공황상태에 빠져 하느님께 매달리면서도 울부짖기만 할 뿐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막무가내로 매달리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35명으로 구성된, 태아 생사에 대한 병원 확대 의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정부에

서 파견된 사회복지과 직원과 병원 상주 목사님 그리고 사위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많은 설왕설래 끝에 생명은 소중한니 태아라도 살려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비록 산모가 뇌사상태로 회생불능이지만 산모를 2개월만 잘 유지한다면 배 속의 아기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이 아이를 살리시려고 섭리하셨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달간 치절한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비로소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한인 성당에도 한국의 판교 성당에도 연락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는 딸의 침대 곁에서 매일매일 태아에게 그림 성경을 읽어주며 하느님께 한 생명을 데려가시려면 한 생명을 살려주시라고 매달렸습니다. 당신은 사랑이신데 두 생명 다 데려가신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고 하느님답지 않다고 따졌습니다. 두 달 후 드디어 제왕절개 수술하는 날입니다. 사위의 부모와 친척들은 수술실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저의 집 사람과 다시 한국에서 달려온 아들은 옆방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기다립니다. 갑자기 “으아앙~”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적막을 깨며 우렁차게 병실 가득 울려 퍼집니다. 순간 모여있던 사람들이 와~ 합성을 지르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잠시 후 집도의가 수술복도 벗지 않은 채 아이를 안고 나와 만면에 가득 웃음 지으며 의기양양하게 사람 사이를 획 돌고 들어갑니다. 그동안 살리려고 혼신을 다한 새 생명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입니다.

오, 하느님! 그러나 저에게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모든 의료 보조장치를 제거한 딸애의 심장 모니터 그래프는 점점 꺼져가고 사람들은 왱자지껄 환호합니다. 우리 가족은 크게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속으로 울음을 씹어 삼킵니다. 아침에 한 간호사가 아기에게 선물한다고 손수 떠온 예쁜 담요에 아기를 싸서 제 어미 품에 안겨줍니다. 15분쯤 제 아기를 안아본 어머니는 마침내 심장이 멈추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한 생명이 가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 한 생명을 거두시고 한 생명을 주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딸아이가 두 달 동안 병상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당신은 배 속의 아기를 살리시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훌륭한 의

사와 간호사들을 보내시고 산소 호흡기와 각종 의료장치를 사용케 하시어 새 생명을 창조하시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느님! 우매한 죄인은 그것도 모르고 감히 당신께 대들었습니다. 이제 새삼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제 온몸은 전율합니다. 이렇게 저는 둘째 외손주를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체험했습니다. 비록 서른셋 젊은 나이에 딸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가 남긴 두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오묘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또한 느낍니다.

조금씩 번져가는 말씀 씨앗



홍환표(제노)·이러닝학습 1학년

찬미 예수님!

2006년 딸아이의 요청으로 서울로 이사한 지도 벌써 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주말부부로 서울과 지방을 오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아이는 원하던 교대에 잘 다니고 있으며, 작년에는 문정동성당에서 초등부 교리교사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지도 딸아이 덕택으로 2011년 시작한 성서 100주간 과정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으나 4년 동안 가족 같은 정이 많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제게는 2000년 공동번역 성경에 이어 2번째 통독하는 은총이었습니다.

아쉬워하던 레오나 자매님이 토요일 성경공부를 계속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타 성당에서 출장봉사 해오던 수산나 봉사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사하면서 마땅한 봉사자가 없어 사실상 재출발이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던 수산나 자매님이 제게 소임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고 저는 그 요청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겁결에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저는 성경 통독을 2번 한 것밖에 없어 지식이 부족하며, 둘째로 4년 동안 매주 토요일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과 주말이면 서울에 꼭 와야 한다는 부담감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 셋째로 참가인원이 4~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출석을 잘 할까 하는 것과 저 때문에 중요한 공동체가 폐지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마르타가 서울주보에 소개된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에 등록해서 공부해 보라고 권하였습니다. 지역과 시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닝 성경공부과정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제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시작되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그 주에 나눔을 위한 진도를 미리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1기 가족들에게도 꾸준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강의 자료를 내려받은 다음 종이로 출력하고 신부님의 강의를 2회 반복해 들은 뒤 주요내용을 8쪽으로 요점 정리하여 토요일에 1시간 동안 전달 강의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 토요일반은 신약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닝강의는 구약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지만 처음이 아닌 2기생이기에 낯설지가 않아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60~70대가 대부분이었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보다는 쉽게 이해하도록 용어 설명을 하였으며, 오경에 관한 연대표와 고대근동 지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도식화하여 5~6차례 반복 강의를 하였습니다. 진도보다는 반복 강의에 중점을 두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토요일 3번째 동영상 복습 수강은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었습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참석자 수가 2~3명 수준으로 떨어져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석률이 낮아 미안

해하는 저를 노인대학 회장님이신 야곱 형제님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꾸준한 정성과 기도 덕택으로 5월 16일 마재성지순례 때 작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10명이 참석하여 승용차 2대로 함께하였습니다. 성경공부 가족과 함께 미사지향을 드린 후 호숫가 산책을 했습니다. 연잎밥은 별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1기생인 아네스 자매님과 스테파노 형제님도 함께하여 이제 성당 내 어느 모임에 못지않게 잘 운영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저희 성경공부반의 나눔 주제는 필리피서 1—4장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 4장 4절에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위한 바오로 사도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이 구절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몸으로 실천한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오로 사도처럼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힘 닿는 데까지 봉사자의 사명을 다하기로 거듭 다짐해 봅니다. 주님 저와 늘 함께하소서. 아멘.

천국이 이곳, 바로 여기에



윤성숙(레지나)·이러닝학습 5학년

저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15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은 준비를 하고 왔건 준비를 하고 오지 않았건 다각적으로 힘겨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타국에서의 생활이 적응될 때도 되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느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는 게 꼭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이’는 현세에서도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체험한, 아니 제가 받은 선행만 적어도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뜻은 저는 세상에 갇을 게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이민 생활이 녹록하지 않다는 말처럼 저도 역시 하루 열네 시간을 꼬박 서서 일하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여섯 시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는 저녁 아홉 시까지 세탁소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형편이지만 열심히 신앙 생활도 하고 은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언니와 함께 사시다 얼마 전 치매와 방광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그리운 가족들을 원하고 필요로 할 때 만나러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아네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재원인 남편과 함께 아이 둘을 키우며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었습니니다. 아네스는 시간이 날 때면 공동체 일도 잘 도왔고, 조용히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 년 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는 그동안 저에게서 들은 제 어머니의 사정을 위해 기도를 하였고 저의 염원인 어머니의 세례를 위해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치매와 방광암으로 어머니가 혼자 계실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저를 대신하여 어머니가 계실 만한 곳을 언니와 함께 방문하여 알아보고 함께 좋은 곳으로 모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 예전 직장 상사였던 정 리디아 자매님이 양평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 만나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 리디아 자매님은 제가 가장 힘든 시절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어 등록을 못할 때 등록을 해주시고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미국에 전시하러 오실 때마다 들르셔서 제 가족들 모두를 살피고 가시고는 하지요. 정말 이 영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거저 얻은 삶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번 마태오복음서 25장 31-40절을 묵상하며 새삼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은 그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선행을 베풀었으며 또 그것을 통해 그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엔 예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파서 성당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든 상태였지만 겨우 일어나 일을 가려고 새벽에 문을 열고 나서는데 문앞에 또 문고리에 여러분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죽,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 그리고 국.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랑이 이곳에, 천국이 이곳에, 바로 여기에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주일에 모습을 보이지 못함을 알고 일하러 나갈 때 보겠다 싶어 모두들 새벽에 문앞에 놓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최후의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참으로 나는 주님의 은총 아래 많은 소중한 분들이 계심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알렐루야.

우리는 통서가족이에요!

Q. 통서가족은 어떤 모임인가요?

A. 통신성서 재학생과 휴학생 그리고 졸업생을 위한 모임입니다.
(우편학습이든 이러닝학습이든 상관없이 모두 모두)

Q. 어떻게 가입하나요?

A.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 회원들의 자유로운 글과 교구별 활동 이야기들을 나누며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회원 3,035명 ^^ (카페주소 cafe.daum.net/junim510)

Q. 어떤 활동을 합니까?

A. 통서가족을 위한 기도, 교구·지구별 매월 말씀 모임,
통서가족 전체 모임, 소그룹 산행 모임, 신입생 모집 활동,
온라인 카페 모임 등등 (동문회장님의 1년 활동보고를 참조해 주세요^^)

Q. 통서가족을 한마디로 말하면?

A. 말씀으로 하나 된 끈끈한 가족! (여러분, 함께해요!)

뒤돌아보지 말자



서정대(안드레아)·동문회 고문

2013년 10월 12일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19시경 전국회장단 회장님들이 모여 차기 동문회장 투표를 하고 있었다. 투표 결과 내가 임기 2년의 동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동문회장의 십자가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을...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 덜컥 회장직을 수락하면 동문회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권의 유행어대로 잃어버린 2년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뒤돌아보지 말자.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창세 19,26) 뒤를 보지 말라는 천사의 당부를 어기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며 뒤를 자꾸 돌아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만 보고 전진하자.

그동안 도움을 주신 교육원 전화용 아녜스 책임자 수녀님 외 수녀님들, 황선주 토마스 아퀴나스 고문님, 바쁘신 중에도 동문회 총무로 동분서주해 주신 정수옥 말구 님(현. 동문회장), 많은 도움을 주신 카페지기 김창호 야고보 님(현. 동문홍보)을 비롯한 운영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자구요.^^ 살~롬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1) 교구 통서가족 월례모임 방문

: 6개 교구 방문 (의정부, 동서울, 서서울, 중서울, 대전, 광주)

2) 전국 통서가족 친교 모임

- 날짜: 2014년 10월 18~19일
장소: 수원 새싹동산 청려수련원
참석인원: 64명



카페 운영진들의 난쟁이춤 공연



통서가족 단체사진

- 날짜: 2015년 10월 17~18일
장소: 부산 명상의 집(왜관 성 베네딕도회 피정의 집)
참석인원: 67명



손에 손잡고~♪



단체로 찰칵! 브이~ ✌

3) 연수회 방문

: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급졸업, 신약입문, 구약입문 연수회를 방문



입문연수회를 방문해서 찰칵~



졸업연수회 장식을 도와주면서 찰칵~

4) 카페 정기모임



2014년 카페 11주년 정기모임: 갈매못성지



2015년 카페 12주년 정기모임: 줄무덤성지

5) 산행모임



비도 피해 다니는 산행 즐거웠습니다. 우면산에서...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계양산에서...

‘중서울지역’ 7월 모임을 마치고

카페글. 김순이(캐롤린) · 2013년 영성수로

메르스 때문에 오랜만에 모임을 했습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렸는데 중서울에는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셨어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김정훈 신부님의 「거룩한 독서 길잡이」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시작 성가는 35번 ‘나는 포도나무요’로 시작했구요, 말씀은 시편 146편 1-10절을 읽었습니다. <영원한 찬미: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한”(시편 146,2-7)>이라는 주제풀이를 중심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1. 내가 생각하는 기쁘고 보람된 삶은 어떤 것인가?
2. 나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3. 내가 하느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이므로 일상에서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찬미는 이웃이 내 모습을 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실천하는 삶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이 묵상 나눔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침성가로는 우리들의 교가 ‘하나 되게 하소서’로 마무리하고 2차로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며 국밥 한 사발씩 했습니다.

중서울모임을 함께하신 배향숙 말가릿다, 박소영 소피바라, 신외수 마리아, 황지영 루치아, 이정은 소화테레사, 이정현 레베르타 회장님, 김창호 야고보 님, 그

리고 저 김순이 캐롤린 이렇게 조출하게 8명 참석했습니다. 다음 달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여러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은 때가 있구나. 그냥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구나. 내가 기쁘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드는 것이구나. 오늘도 제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이 떠나지 않도록,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거울을 보며 환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아멘. ☀

‘인천지역’ 5월 모임을 마치고

카페글. 이원학(아타나시오)·16회 졸업생

+ 주님의 평화

제일 좋은 시절 성모님의 달에 인천 성바오로딸 수녀원에서 5월 통서가족모임을 가졌습니다. 비가 와서 가는 길은 좀 불편하였지만 수녀원에 도착하니 수녀님들께서 반가이 맞이해 주셨습니다. 역시 1등 도착은 제일 멀리 강화에서 오신 미카엘 형제님, 제가 둘째, 이어서 카타리나 자매님, 안젤라 부회장님, 조금 늦으셨지만 피곤을 물리치고 달려오신 엘리사벳 고문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말씀나누기와 더불어 한 달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생활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보자는 말로 말씀나누

기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간식을 맛있게 먹고 다음 달 모임을 약속하고 마침성가로 244번 성모성월 성가를 부르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경당에 모셔진 예수님께 깊은 절로 인사드리고 수녀님들의 전송을 받으며 빛속을 뚫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항상 모임 안에서 끈끈한 정과 주님의 사랑 체험에 감사드리며 다음 달 모임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11월 해운대 기장성당에서 ‘부산 통서가족’들이 함께한 성서주간 행사



사진: 양경자(로사)

면역력, 숲길, 그리고 행복함에 대하여



고희상(유스티노) · 졸업생 평가자

‘신종 바이러스’와 ‘환경보호’, 그리고 ‘면역력’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우리나라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에 떨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아서 더욱 두려웠던 것 같다.

문제는 이런 바이러스 병원균에 대한 마땅한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없어서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서양의학은 어떤 병이든 치료해 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번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현대의학에 너무 기대어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았던 사실 중의 하나가 바이러스 병원균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환경 파괴와 오염 등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자명하다. 2003년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가 나타났고, 또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107,939명이 발병해서 사망자가 260명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메르스가 나타나서 이른바 6년 주기설까지 등장하였다. 이런 전염병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신종플루는 돼지, 메르스는 낙타, 에볼라는 원인이 확실하지 않

1. 5회 졸업생, 원광대 철학박사 (기학전공)

지만 박쥐, 설치류, 유인원 등이 숙주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밖에도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닭, 오리, 돼지 등이 생매장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처럼 바이러스 병원균은 종류도 많고 변종도 아주 많이 생기며 이에 따른 증상도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현되는 것 같다. 이번처럼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 경우 개인의 면역력과 최선을 다한 의료인들의 치료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어쨌든 면역력을 길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과제가 생겼다. 다음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갈수록 심각한 전염병들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환경오염과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우리 각자에게 되돌아오고 말 것이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연의 생태계에 의지하여 생존하고 번식하며 생을 누리고 있다. 사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이 자연을 돌볼 임무를 이미 맡기셨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도 ‘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95항)라고 하였다. 이렇게 환경보호는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두려운 질병에 대응하여 다시금 새롭게 대두 되는 것이 바로 체내 면역력 강화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말한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면역력의 저하는 바이러스 침투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 된다. 병원균에 노출되더라도 면역력에 따라 그 영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원균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덜 받는 것이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나이가 젊다고 해도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든 강화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건강하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옛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건강비법

현대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면역력 강화에 대한 방법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 대체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과 생활습관을 바르게 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자는 것들이 대세다. 이 같은 일반 상식화된 지식으로 어느 정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실행할 때 꾸준히 그것도 최소 3개월 정도를 노력해야만 면역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주 비싼 건강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면역력이 금방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운동을 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면역력 강화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옛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연과 생명을 탐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예방하며 치료하고자 했으며, 더불어 그들은 생사를 초탈한 마음 수양과 명상을 수행하면서 장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따라 그들은 많은 저서들을 남겼으며 면면히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지닌 수련인들의 노력의 산물인 좋은 수련법들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또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전통적인 의술과 수련법들이 마치 미신적이며 아무 효과가 없는 듯 무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사람이란 본래부터 각종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장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고 태어난다. 곧 바른 식생활,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수면을 유지하고 호흡법에 의한 내단(內丹)수련과 명상을 하며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를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예를 옛사람들의 건강법을 통해 알아보면, 옛날 중국 북송시기의 남종 내단파의 장백단(984혹은 987-1082)이란 사람은 「오진편(悟真篇)」이란 저서에서 “본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장생약이 있는데 스스로 혼미하여 포기하는구나”²라고 하였다. 이 말은 사람이면 누구나 장생할 수 있는 약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서 건강

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모두 다 장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다. 장백단은 1,000여 년 전에 이미 인간들은 몸 안에 각종 질환에 대응하는 면역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대응하였다. 그 역시 열심히 수련한 덕분인지는 몰라도 거의 100세에 이르기까지 살았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장백단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사람인 중국 동한東漢 때 사상가인 왕충王充(27-100)은 칠십 세 때 「양성서養性書」 16편을 지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를 길러 스스로를 지키면서, 적당한 때에 술을 마시고, 눈과 귀를 혹사하지 않으면서 정精을 아껴 스스로를 보존하고, 보약과 도인체조로 적절하게 도우면, 대체적으로 성명性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³라고 하였다. 이 말 역시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귀감이 되는 말이며 기 수련의 가치를 긍정하면서 적절한 생활습관을 통해 장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국의 저명한 의학가이면서 양생가인 당나라 때의 손사막孫思邈(581-682)은 「천금익방千金益方·양성養性」 편에서 노년기와 노화의 증상과 특징에 대해 매우 뛰어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102살까지 장수하며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은 긴 노년기의 삶을 깊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아주 깊게 고찰하여 실제적인 양성법養性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사람의 나이가 40세를 넘으면서부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사십 세가 넘으면 갑자기 기력이 일시에 쇠퇴해지고, 쇠퇴함이 심해지면 여러 가지 병들이 들고 일어난다”⁴라고 말한다.

특히 그는 사람들에게 병이 많은 까닭이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동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양성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병의 뿌리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사람

2. “人人本有長生藥，自是迷途枉擺拋。”

3. 王充, 「論衡」, 「自紀」 “養氣自守, 適時則酒, 閉明塞聰, 愛精自保, 適輔服藥引導, 庶冀性命可延。”

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七 ‘養性·道林養性第二’, 北京, 華夏出版社, p.481, 2008. “四十已上即頓覺氣力一時衰退. 衰退既至, 眾病蜂起.”

에게 병이 많음은 마땅히 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몸이 건강할 때는 늘 그 러하리라 말을 하고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즉시 실천에 옮겨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며,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인데도 밤낮 으로 속이며 스스로 자기 본성에 맞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훗날에 그 하나하나가 모두 병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⁵고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병이 생겨 하늘을 우러러 양손을 비비며 하늘의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는데 그것은 평생의 마음가짐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젊었을 때 몸과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행동 중에 모든 병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백네 가지 병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이지 결코 하늘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또 말하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성과 명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으로 알고 깊이 부끄러운 마음가짐으로 몸과 마음을 삼가고 억제하여 항상 착한 일만을 행하는 것이다”⁶라고 하여 삶에서 법도를 지키며 도덕을 함양하는 생활을 해야만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계절의 기후가 화창하고 좋은 날에는 “그 시절의 춥고 따뜻한 것을 헤아려 문을 나서서 2리나 3리를 걷고, 2백 보나 3백 보가 좋다. 자신의 역량을 헤아려서 걷되 기가 부족하거나 헉헉대며 걷게 해서는 안 된다”⁷고 하였다. 이 말은 걷는 것이 건강에 좋으나 자기 몸에 무리하지 않게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까지 옛사람들 중 몇 사람들만의 건강비법을 살펴보았지만 그 건강법이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시사적이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
5. 孫思邈,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七 ‘養性·道林養性第二’, 北京, 華夏出版社, p.481, 2008. “若夫人之所以多病, 當由不能養性。平康之日, 謂言常然, 縱情恣欲, 心所欲得, 則便為之, 不拘禁忌, 欺罔幽明, 無所不作, 自言適性, 不知過後一一皆為病本。”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七 ‘養性·道林養性第二’, 北京, 華夏出版社, p.481, 2008. “故有智之人, 爰惜性命者, 當自思念, 深生耻愧, 戒勒身心, 常修善事也。”
 7. 孫思邈, 『千金翼方』卷第十四·退居·養性第五, 北京, 華夏出版社, p.127, 1991. “四時氣候和暢之日, 量其時節寒溫, 出門行三里二里, 及三百二百步為佳, 量力行, 但勿令氣乏氣喘而已。”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50세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니 만 60세가 되면 축하하는 의미의 회갑연을 열 정도였다.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 중에서 기를 수련하면서 정을 아끼며, 건강에 좋은 보약과 음식을 적절히 잘 섭취하고, 도인체조와 절제하는 마음 수련을 통해 100세 가까이 산 사람들도 많았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의료적인 환경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웬만한 병은 병도 아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더 발전되고 좋아졌을까? 오히려 경제적인 성과와 의료 환경에 비해 삶의 행복이란 질적인 부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지난 3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세계 143개국의 성인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른바 ‘행복지수’를 조사해 봤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18위를 했으며, 세계 평균 행복지수는 71점인데 우리는 5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수인 나라는 내전 중인 팔레스타인, 아프리카의 가봉, 아르메니아 등이다. 이 행복지수 조사는 나라의 부유함과 관계 없이 하루하루 사는 재미가 있는지, 일상의 행복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행복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 4명 정도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며, 전체 대상자 중 3분의 1 정도가 우울, 불안, 분노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의심되는 비율은 각각 28퍼센트, 21퍼센트를 차지했으며, 분노조절장애가 의심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도 11퍼센트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일생 중 한 번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퍼센트에 육박했다. 상담 받고 싶은 문제는 우울증이 44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실제 치료를 받은 대상자 중 70퍼센트가 증상 호전을 경험했다고 한다.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복감이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삶에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첫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첫째가 바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그 다음 둘째는 명예이다. 셋째가 권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째 명예라는 것은 실제로 삶을 구성하는 가치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오히려 돈보다도 더 마음에 충격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명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릴 때 받은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들은 어릴 적부터 명예를 매우 강화하는 교육만을 받아왔다. 남들보다 더 못해서는 안 된다거나 저도 안 된다는 등 사람들을 경쟁적인 구도로 밀어 올렸다. 그러다 보니 욕심도 많아지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욕망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할수록 남과 비교하게 되고 또 비교해 보니 다른 사람만 못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늘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 같은 불안감에 싸여서 쫓기며 살게 된다. 가뜩이나 미래가 불안한데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면 먼저 분노가 치밀어올라 급기야 화를 내게 된다. 그 분노는 밖으로 표출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과 사정상 밖으로 표출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다. 화가 난다고 주먹질을 할 수도 없고, 또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 보면 참을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스트레스로 쌓여 육체 조직 안에 침투해 몸을 상하게 만드는 일등 공신(?)이 된다. 화를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 뽕뽕 달아걸고 자신 안에 쌓아두니 우울증도 생기고 또 상실감 등 정서적 장애가 생기게 마련이다. 더 나아가 이 분노를 쌓아만 두고 해소할 줄 모르면 그 스트레스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병이 돼버리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분노가 극에 달하면 화를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8. 『동아일보』, 2015년 4월 6일.

한다. 그러므로 이런 분노와 화를 해소하지 않는 한 면역력 강화와 건강은 꿈같은 이야기가 돼버린다.

‘행복한 숲길 걷기’

그렇다면 이 분노와 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은 분노와 화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이 좋다. 그 밖에 쉬어야 한다거나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또 명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그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자신의 삶에 관해 생각을 해보는 것이 분노 해소의 첫걸음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자신의 삶 자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 돼가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곧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강물을 떠다니는 나뭇조각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떠도는 마른 낙엽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그 무엇이 나의 감정과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것이 증오심과 적대감, 슬픔, 비참함, 괴로움과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짐이라면 훨훨 벗어버리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 깨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삶의 괴로움과 욕망,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과 더불어 고요한 마음을 통해 내면을 찾아가는 명상이 최고다. 명상은 약과 같은 것이다. 본래 meditation(명상)과 medicine(약)은 라틴어 메디켈루스(medikelus)라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명상 수련은 사람을 치료하는 약과 같이 좋은 것이며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명상 수련은 결코 쉽지 않다. 만일 명상을 한다고 해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불순한 사념들로 인해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이 수련도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사실 오래 앉아있으려 해도 알지 못할 불안감과 고통스런 여러 가지 기억들로 인해 금방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걷기이다. 걷는 것

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숲길을 걷는 것이다.

왜 숲길을 추천하는가? 우선 숲은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시각·후각·청각·촉각·미각)을 다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곧 오감만족을 준다. 오감 중에서 시각은 나뭇잎과 풀들의 초록색이 안정감을 주며, 후각은 숲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에 의한 싱그러움과 청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청각은 숲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내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등이 살아있는 생동감과 활력을 준다. 촉각은 나무를 껴안았을 때 살아있는 생체 기 에너지가 행복감과 편안함을 준다. 또 미각은 천연 미네랄이 가득한 맑은 샘물의 맛을 통해 생생하고 건강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숲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가? 숲길 걷기가 별다른 비용 없이 또 배우느라 힘든 것 없이 건강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로지 자기가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숲길은 걷기만 해도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며 병이 있다 해도 저절로 치유가 된다. 그것은 자연의 기가 부족한 나의 몸을 저절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깊은 병에 걸렸다고 해도 숲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자연의 치유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숲길을 걷다 보면 처음에는 몸이 힘든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점차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그동안 몸 안에 쌓인 분노와 화 덩어리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걷다가 힘들면 잠시 의자에 멍하니 앉아 쉬면 그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육체와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야만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숲길 걷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자연의 숲길은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다. 돈, 명예, 권력이 있다고 해서 숲이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자연의 숲길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자유를 준다.

숲길을 걷는 방법은 별다른 게 없지만 가능하면 조용히 걷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 홀로 걷는 것이 좋다.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듣거나 떠들면서 걷는데 그러면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며 숲길 걷기 효과가 반감된다. 또 빨리 걷기로 경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모두 다 자연과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걷는 것이 좋다. 며칠 걸어서는 효과가 없다. 꾸준히 주 1회라도 최소 3개월은 걸어야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온다.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강화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됨은 물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숲길은 우리들에게 저절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해준다.

숲길 걷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며,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이며 그리고 기쁨이고 행복감이다. 다른 것들은 외부에서 오지만 이 감사함과 기쁨, 행복은 오직 자기 내면에서만 나온다. 이러한 느낌이 지속되면 자기 모습이 맑고 밝으며 아름답게 변형되는 날이 온다. 그날을 위해 열심히 숲길을 걸어보자.

말씀을 멩어로 진 사람



한재호(루카) 신부
제주교구, 광주가톨릭대학 교수
우편·이러닝 강사

7월 중순, 이러닝 녹화를 위해 성바오로딸수도회에 머무시면서
신부님께서 강론 때 들려주신 감동적인 신앙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추석이다. 햇곡식과 햇과일을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날이다. 한 해 동안 열매
맺은 것들을 조상님께 바치는 날이다. 이를 위해 가족들이 모이고, 온 집안이 풍
성한 잔치를 연다. 사람들은 이렇게 머나먼 고향에 떨어진 나를 두고 ‘얼마나 외
로울까, 더더군다나 추석인데...’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에게 추석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준다. 오늘 음력 8월 15일은 말씀살이 1주년이 되는 날이
기 때문이다.

그러니깐 작년 이맘때에 추석 미사를 드리기에 앞서 성당 안에서 기도를 드렸
더랬다. 과연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곡식을 맺어주신 것일까? 그분께
서 나에게 이제 추수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분께 도로 바칠 햇곡식과 햇과일은 무엇일까? 가장 새롭고, 가장 특별한, 가장
나에게 큰 열매인 것은 어찌면 한 해가 아니라 나의 사제생활 전반을 통해서 그
분께서 주신 열매일 터인데... 내가 추수하고 도로 바쳐드려야 할 그 열매가 무엇
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의 단어 곧 ‘말씀’이었다.

신학생 때에 구체적인 사제상을 지닌 선후배, 동료들이 참 많던 반면 나는 그다지 뚜렷한 사제상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장애우와 함께하는 사제가 되기 위해 매주 꼬박꼬박 복지 시설에 가고 수화를 배우며 논문도 복지와 관련된 글을 썼다. 어떤 이는 지역의 신학 토착화를 위해 지역의 신화, 언어, 여러 사건들, 지역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재조명하며 지역의 교구 사제로서의 구체적인 사제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어떤 사람은 사회 정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노동 사목을, 어떤 사람은 청소년 사목을... 그러나 나는 뚜렷한 그 무엇을 나의 비전으로 삼은 게 없었고 너무나도 막연하게 그저 제주 교구의 신부 자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논문도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관심을 갖고 쓴 것이 아니라 그저 신부가 되어서 성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그것도 너무 우스워 보일 것 같아 석사 논문을 성서 주석으로 하게 된 것이다. 사실 다른 신학 분야는 나름대로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책을 참고하여,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대략적으로나마 자신감이 있던 반면 성서에 대한 묵상에서는 빈약함을 느꼈고 성서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이나 성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논문 “필리피서의 그리스도의 찬가 성서 주석”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논문을 쓰면서, 논문을 쓰고 나서 마음 깊이 결정한 푸념 비슷한 다짐 하나가 있더라. “두 번 다시는 성서에 대해 학문적인 공부를 한다거나 성서와 관련된 신학 책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논문을 쓰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다. 논문 지도 신부님을 안식년으로 6개월간 뵈 수가 없었고,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 나는 많이 헤맬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감을 잡고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고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시쳇말로 “학을 뺏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나는 사제가 되었다. 그런데 사제가 된 뒤 말씀과 나는 참으로 묘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인연은 성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열정과 관심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창조하신 그분에 의해서 맺어진 것임을 고백한다. 바라지도 않던 상황들... 전임 신부님이 본당 청년 카페에 복

음 목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나 또한 매일매일 마지못해 복음 목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다 보니 점점 복음을 읽는 눈이, 성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름대로 잡히기 시작했고 자칫하면 강론을 대충대충 준비하기 쉬운 유희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고 결국 하루의 양식이 말씀 목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신학생 때에 통신성서 평가자로 봉사하면서 알게 된 신자들, 그리고 그 신자들로부터 알게 된 어느 인터넷 카페에도 복음 목상을 올리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놀라운 모습들에 감화를 받게 되었고 그분들의 말씀 목상에서 또 다른 양식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가톨릭 서점을 가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로지 성서와 관련된 책들뿐이었다. 서점에서 나오면 어김없이 다른 책들은 하나도 없고, 성서 목상집, 성서 신학 서적, 성서 개론서 등등이 비닐 봉투에 가득 차게 되었다.

말씀이 주는 매력과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청년성서모임에서도 계속되었다. 청년 안에 영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청년성서모임이 처음에는 지각과 결석이 빈번했으나 어느새 겨자씨 자라나듯 아주 깊이 있는 모임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함께한 젊은이들은 또 다른 말씀의 사도가 되어 자발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의 봉사자로 나서기도 했고 때로는 나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또 다른 스승이 되기도 했다. 점점 나는 성서의 단어 하나, 성서의 장절 하나하나가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의 중심으로 다가서기 시작함을 느꼈고 성서 안의 여러 인물들,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내 삶 곳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구 후보에 반강요적으로 시작된 성서 연재. 단지 짧다는 이유만으로, 성서를 논문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신약성서, 구약성서 전체를 매주마다 조금씩 쪼개어 목상과 신학적 상식을 곁들여 쓰게 된 것이다. 성서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부족하던 내가 성서를 더욱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교회 안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서 관련 서적을 탐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반강요적으로 시작한 성서 연재는 매주 원고 마감에 시달려 고생도 많았지만 말씀을 막연하고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더욱 근거 있게 해석해야 함을 느끼

게 해준 선물이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제 3년차가 되어갈 무렵 교구 성서 강의를 1년간 하게 되었다. 역사서와 예언서. 매주 100명 가까이 되는 신자 분들 앞에서 공식적인 강의를 하게 되면서 나는 말씀을 나누는 맛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무릇 가장 잘, 가장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지름길은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배우게 된다. 성서 강의는 이렇게 나를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게 하였다. 매주 월요일마다 있던 신부님들끼리의 렉시오 디비나도, 첫 본당 주임신부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성서 쓰기도 하나하나 내 삶의 일부로 정착이 되어 점점 렉시오 디비나의 성서 진도가 무르익어 가고 성서 쓰기 노트도 한 권 한 권 쌓여갈 무렵 나는 한국교회를 다시 보게 되었다. 레지오 교본 연구를 매주 꼬박꼬박 하는 신자들은 많아도 성서 연구를 하는 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매주 술잔을 나누면서 친교를 이루는 신자들은 많아도 말씀의 잔을 나누는 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매주 신문, 뉴스 기사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그것을 나누는 신자들은 많아도 성서의 장, 절을 외우고 그것이 삶에 주는 의미를 나눌 줄 아는 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매주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신자들은 많아도 말씀 나누기와 강론 말씀에 울고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아,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굶주린 것이구나. 우리 교회 신자들이 말씀에 맛 들이는 날이 온다면... 말씀을 자기 방에, 자기 책상에,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신자들이 많아지는 날이 온다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울고 웃고 기도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성서를 함께 펼치어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익숙해지는 날이 온다면... 적어도 “가톨릭 신자들은 성서를 잘 몰라”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배가 부를까... 얼마나 교회가 더 그리스도적이 될까... 내 인생, 사제로서의 내 인생, 다른 무엇보다 이런 날을 그리며 바치면 여한이 없겠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신자들과 나누며 사는 날을 위해 그렇게 한목숨 다한다면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살면 적어도 이 인생 억울하지는 않겠구나. 어디 가서 자랑할 인생도 아니지만 내 자신이 기

쁘게 살 만한 인생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후려쳤다. 그리고 추석이 왔던 것이다.

나의 열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당신께 햇곡식과 햇과일로 드립니다. 당신께서 맺어주신 이 모든 것 도로 바칩니다. 이제 제 삶을 덧붙여 도로 바칩니다. 주님, 이 추석을 맞이하여 추수하게 되는 저의 봉헌을 받아주시어 제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잉태하고 낳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나는 작년 오늘, 기도를 드리고 미사를 드렸다. 그리고 며칠 후 주교님의 호출이 있었다. “자네를 교구 사제 참사회에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네. 어떤 것을 공부하면 좋겠는가? 신부님들은 자네가 성서를 공부하면 좋을 것이라고 추천했네만...”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난 뒤, 그리고 나의 소견들을 들으시고 난 뒤, 주교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다. “그럼 로마에서 석사 과정까지 성서를 공부하고 오게나. 다만 성서학자를 만들자고 자네를 보내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게. 한국에는 이미 훌륭한 성서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한 많은 신부님들이 성서를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말일세, 신자들에게 사목적으로 쉽게, 말씀을 살게 하는 사제일세. 신자들이 더 이상 성서를 어려운 것으로만 느끼지 않고 성서를 가까이 모시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교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서 공부하고 오게나.” 주교님의 말씀에 나는 아주 깊이 공감하였고 난 나의 햇곡식과 햇과일을 봉헌하고 난 뒤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새로운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하느님의 언어를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 특히 이태리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언어를 붙잡으며 아등바등하고 있다. 말씀살이는 이제 나에게 없어선 안 될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나약하고 외롭고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넘어가고 자주 쓰러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기도에도 태만한, 그런 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희망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지난 나의 사제생활은 일러주었다. 말씀살이는 이런 내가 지금 붙잡을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지푸라기이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던 그 심정으로 나는 말씀을 잡으며 그 안에 머무르고 있다. 말씀을 이태리어로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말씀 묵상집을 이태리어로 읽기도 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 느낀 바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말씀살이를 제대로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1주년. 하나의 매듭이다. 이태리에서 지내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때도 있었고 사제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던 날도 있었으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 날도 있었지만 말씀이 준 그 느낌 하나하나를 부여잡으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려고 노력한 그 모든 시간들의 매듭이다. 이제 다시 나는 그분께 나의 햇곡식과 햇과일을 봉헌한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도다.”

말씀을 사는 우리들의 시선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맛 들인 이들은 점차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나와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래의 글은 신약입문 4과 ‘필레몬서’와 관련하여 제시된 글입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태도가 잘 드러난 아래의 글을 읽고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을 이미 공부한 신약입문 학생들의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태도

—필레몬서를 중심으로

바오로는 오네시모스라는 노예를 개종시키고 영적 아들로 삼는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이자 오네시모스의 주인인 필레몬에게 편지를 쓴다. 자신의 편지를 읽고 필레몬이 오네시모스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용서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필레몬서를 살펴보면, 바오로는 노예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다. 노예제도를 인간 사회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수긍한 듯하다. 바

오로 시대의 노예제도는 사회의 근본요소였다. 노예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설교한다면 자칫 유혈사태를 빚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사회를 붕괴시키는 혁명이론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었다.

그리스도교는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혁명이 아니라 훨씬 심원한 것, 인간 양심의 변화를 도모했다. 단순히 노예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노예가 같은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형제적 식사와 모든 전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이끌었다. 만인이 죄에서 해방된 노예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유인이라고 가르쳤다. 하느님 대전에서는 주인도 노예도 차별이 없다. 인간관계가 그리스도화함으로써 인간화하고 그 결과 노예제도도 사라지는 모습을 역사에서 볼 수 있다.

교회는 특정한 사회를 조직하려 들지 않고 교회 자녀들의 영혼과 양심에 작용하여 그 자녀들이 인간적으로나 그리스도교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게 만든다.

(신약입문 4과 문제집, 필레몬서 참조)

학생들의 생각

▶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이 돈 위주로 살다 보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천대하는 것이다. 우리네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앞에 나서서 봉사하는 형제자매들을 보고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큰소리 내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겸손을 앞세워 더 공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도와주며, 봉사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와 교회는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와 공동체로 변할 것 같다.

이정미(엘리사벳)

▶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자라온 환경, 처한 상황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점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기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주장은 하지만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기하지만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긴 역사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노예제도의 폐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안을 드러난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모든 재화·자연까지도 사랑으로 주신 선물임을 인식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세월호 사건, 메르스... 근본으로 들어가 바라본다면, 지금까지의 시선이 아닌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땀질식 처방이 아닌 사랑과 정의로 이루어진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마음을 열고 시선을 전환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선경(수산나)

▶ 많은 신앙인들이 사회의 제도나 교회의 교리에 집착함으로써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잊고 살거나 오히려 등한시하게 됩니다. 신앙은 인간 내면의 양심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주현(라파엘)

▶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는 풍요와 빈곤, 소통과 불통,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주변에

는 빈곤에 허덕이는 이웃이 적지 않고 통신기술은 발전했지만 소통은 그 이전보다 못하고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보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면 노예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태도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보다는 하느님의 시각에서 사회와 제도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차별 없는 배려와 나눔, 소외 없는 상생의 문화,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기도를 본받아야 하겠다.

김영일(원선시오)

▶ 공권력, 외부작용, 조직적 움직임, 딱딱한 형식과 기존의 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때때로 개별적 상황, 정작 중요한 핵심쟁점, 생명의 존엄성, 가장 기본적인 권리,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무시하고 괜한 낭비, 공포심, 이기심, 무관심, 절망감 등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듯이, 믿음으로써 성령의 은총으로 하느님 자녀가 되면 이런저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주변의 복음화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으르게 보내거나 육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안일함은 접어두어야겠습니다.

신세인(알마)

▶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보다 인간의 양심을 목표로 했다는 점. 하느님은 만민의 아버지시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영원한 구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상기시켜 교회 자녀들의 영혼과 양심에 작용하여 그리스도교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오진숙(루시아)

▶ 노예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태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회는 혁명으로 변화되기 어렵다. 혁명 뒤에는 또 다른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오고 힘없는 민초는 누가 지배해도 억압당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인간 내면의 양심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여 느리지만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아주 작은 집단에서도 갑질, 음질이 있다면 갈 길이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예전에 그리스도교를 몸에 비유하여 머리, 몸통, 팔, 다리의 역할로 표현한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지금은 사회의 각 역할이 고유 역할로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를 존중하며 살고자 한다. 다만 그 역할에 강제성이 없어야 하고, 역할에 따라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사회의 차별이 교회에까지 들어와 교회도 가진 자의 편으로 간다면 하느님도, 사람들도 또 다른 하느님 세상을 찾아 나설 것 같다. 큰 틀의 불의를 없애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내 구석구석에서 하느님의 숨결이 느껴져야 한다.

홍미화(베로니카)

아가와 성경 해석¹

안소근(실비아) 수녀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대단히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지닌 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아래에서는 2013년 프란치스칸 영성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한 “아가가 말하는 사랑의 해석”(『21세기에 꽃피는 신학: 2013년 프란치스칸 영성 학술 발표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3, pp.54-79)과 월간 「성서와 함께」에 연재한 아가 묵상을 바탕으로 하여, 해석 방법들과 본문 해석의 예들을 첨가하여 아가와 성경 해석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아가에 관하여

아가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노래들의 노래”이다.(아가 1,1) 코헬렛에서 “허무들의 허무”가 최고의 허무를 나타내듯이(코헬 1,2: 12,8), 이 제목은 노래들 중의 노래, 곧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한다. 1세기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아

1. 참고문헌: 피에르 그렐로, 「타르굼」, 이기락 옮김, 가톨릭출판사 | 바르비에로, G.,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4 | 베르나르도, “성 베르나르도의 아가에 대한 강론”, 안응렬 옮김, 「가톨릭다이제스트」(1999년 11월-2001년 4월호) | 안소근, 「아름다운 노래, 아가」, 성서와 함께, 2013 | 십자가의 요한, 「영가」, 방효익 옮김, 기쁜소식, 2009 | G. Barbiero, *Song of Songs* (VT.S144), Lieden - Boston, 2011 | M.E. Murphy, *The Song of Songs* (Hermeneia), Minneapolis, 1990 | M.H. Pope, *Song of Songs* (Anchor Bible 7C), Garden City, 1977.

름다운 노래”가 성경에 속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에 라뻬 아키바는 이 책은 당연히 거룩한 책이라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가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날에 비하면 온 세상 전체도 아무것도 아니다. 성문서 모두가 거룩하지만 아가(노래들의 노래)는 거룩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성소가 거룩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가가 지극히 거룩한 책이라고 말한 것이다.

1.1. 저자와 시대 (『아름다운 노래, 아가』, pp.21-23 참조)

아가는 잠언, 코헬렛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을 저자로 내세운다.(1,1) 실제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다. 이 책에서 솔로몬이 나오는 부분에서 솔로몬은 1인칭으로 말하지 않을뿐더러(예를 들어 3,6-11) 솔로몬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들어있고, 사용된 언어와 사회적 배경 등을 볼 때에도 솔로몬이 실제 저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 책의 실제 작성연대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본문의 일부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 보고(기원전 5세기), 헬레니즘 시대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기원전 3세기). 본문에 페르시아 시대 이후의 어휘들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상과 문학유형 등에서도 이집트 연애시들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 들어온 것이라기보다 헬레니즘 시대에 이집트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가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아가의 기원을 신화나 경신례, 드라마 등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은 접어두고라도, 과거에 주류를 이룬 주장은 이 책이 개별적인 노래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라는 설이었다. 현재에도 많은 이들은 이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으며, 특별히 아가를 이집트의 연애시들이나 시리아의 혼인예식 등과 비교하면서 아가에 들어있는 노래들이 그런 데에서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주석 성경」의 아가 입문에서도, “이 책의 구조는 절과 주제 및 이미지와 상황이 되풀이되고, 연결이나 상

황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현대적 의미의 문학적 구성이 결핍되어 있어 규명해 내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가가 단일한 저자에 의해 잘 짜인 하나의 작품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1.2. 구조 (『아름다운 노래, 아가』, pp.24-30 참조)

입문서에서 아가의 구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가의 구조에 대한 이론들은 아가의 기원과 해석에 대한 이론들에 결부되어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가가 서로 독립적인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경우 아가는 단일한 구조가 없다고 보게 되고, 단일 저자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에는 그 구조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아가에서 구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는 이들은 이 책이 개별 노래들의 모음집이라고 판단하고,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은 단일 저자에 의한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Barbiero 2004에 따른 구조를 소개한다.

1. 두 연인은 분리되어 있고, 남성이 여성을 찾는다	2,8-17	5,2-5
2. 여성이 남성을 찾는다	3,1-5	5,6-6,3
3. 두 연인은 서로의 앞에 있다: 경탄과 갈망	4,1-6	6,4-7,11
4. 합일	4,8-5,1	7,12-8,4

아가 1,1은 머리글이고, 1,2-2,7은 서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주로 등장인물들이 소개된다. 그래서 토막토막 끊어지는 느낌이 많다. 2,8-17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애인을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인은 그 순간에 즉시 부름에 응답하여 떠나서지는 않은 것 같다.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연인이 떠나버린 다음 3,1-5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연인을 찾아 길거리로 나선다. 이렇게 둘이 서로를 찾아 나선 다음, 여인은 가마를 타고 솔로몬에게 온다.(3,6-11) 혼인 행렬이다. 드디어 두 연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있다. 4,1-6에서 남자는 자기 애인을 바라보며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4,1)라고 경탄하며 사랑을 향유하

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한다. “경탄”이다. 그런 다음 4,8—5,1에서는 그 사랑이 정점에 도달한다. 앞서 인용한 5,1에서는 남녀의 결합이 완성되고, 그 사랑을 긍정하는 “먹어라, 벗들아.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5,1)라는 말로 아가 제1부가 끝난다.

5,2—5에서 제2부가 시작된다. 앞에서와 같이 먼저 남자가 밖에서 여인을 부른다. 이번에도 역시 이 여인은 대답할 때를 놓쳤고 한 발 늦게 연인을 찾아 나선다.(5,6—6,3) 그런 다음 남녀는 서로 만나고, 여기서도 남자가 자기 애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경탄한다.(6,4—7,11) 그 이후는 다시 사랑의 완성이다.(7,12—8,4) 그 나머지는 결론이다.

2. 아가의 해석사

구약성경에서 아가만큼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지닌 책도 드물다. 10세기의 유다교 학자 사디아(Saadia Gaon)는 “형제여, 당신은 아가의 해석에서 매우 큰 차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는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라는 말로 그의 아가 주해를 시작한다. 아가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여러 해석들은 아가를 서로 다른 사랑을 노래한 책으로 본다. 아래에서는 그 해석의 역사와 각각의 해석의 바탕에 깔려있는 성서 이해를 살펴보고 아가가 과연 어떤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를 규명한 다음, 그 일차적인 의미를 다른 사랑들에 적용시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려 한다.

아가의 해석사는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평가의 역사와 결부되어 있다. 유다교에서 1세기에도 아가의 경전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던 것은, 이 책이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인간적인 사랑을, “감각적이고 관능적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랑을 칭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가 1,2의 “아, 제발 그이가 내게 입 맞추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답니다”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할 때,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아가와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에 속하는 책들 가운데서도 잠언(5장; 7장)이나 집회서(9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자들을 조심하라고 훈계하는 데에 비하여, 아가는 오히려 사랑을 적극 권유한다(“떡어라, 벗들아.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 아가 5,1). 이러한 내용을 자구적으로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아가의 경전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아가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기에는 너무 이질적이었다. 역으로 아가의 경전성을 의심치 않는 이들은 아가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아가의 경전성을 주장한 라뻬 아키바(Aquiba)는 “아가를 외설적으로 노래하거나 이것을 세속적인 노래로 만드는 사람은 장차 올 세상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² 그리하여 유대교에서나 그리스도교에서나 전통적으로는 우의적인 해석이 아가 해석의 주류를 이루었다.

2.1. 유대교의 우의적 해석

유대교의 전형적인 해석은 아가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드라쉬에서, 위에 인용한 아가 1,2는 연인의 입맞춤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토라의 말씀을 간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해석의 다듬어진 형태는 타르굼에서 나타난다. 타르굼은 아가에 나타난 남녀 간의 사랑의 여정이, 이집트 탈출에서부터 종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개되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타르굼을 해석하는 이들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르게 단락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대략 예를 들면 아가 1,2—3,6은 이집트 탈출부터 천막 성소의 건립까지를, 아가 3,7—5,1은 솔로몬의 성전 건립과 봉헌을, 아가 5,2—6,1은 유배를, 아가 6,2—7,11은 귀환과

2. 이와 관련하여 Barbiero는 이렇게 말한다. “기억해 둘 것은 아키바가 그의 신앙을 위하여 순교자로 죽었으며 그의 생명을 희생으로 바침으로써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는 아가 8,6을 증거했다는 것이다.”

제2성전 건립을, 7,12—8,14는 메시아 시대를 나타낸다는 식이었다.³

이렇게 아가의 신랑을 하느님으로, 신부를 이스라엘로 보는 해석은 구약성경 특히 예언서의 탄탄한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이 해석을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호세아를 비롯하여 예제키엘, 예레미야, 제2이사야로 이어지는 전통이 없이 과연 그러한 해석이 가능했을까? 이러한 예언자들의 전통은 타르굼에서와 같은 아가 해석을 뒷받침한다. 아가의 일차적인 의미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는 데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예언자들의 전통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읽는 이스라엘은 본문에 무리를 가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하느님과 자신의 사랑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세에도 10세기의 사디아, 11세기의 라시(Rashi) 등 유대교의 주요한 아가 주해자들은 이러한 전통적 해석의 노선을 따랐다. 한편에서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아가의 남녀를 각각 능동지성과 수동지성으로 이해하거나(Joseph Ibn Caspi, Isaac Sehula 등), 지혜와 지혜를 찾는 인간으로 이해하는(Isaac Abravanel 등) 예도 있었으나, 그러한 해석이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다.

2.2. 그리스도교의 우의적 해석

그리스도교의 우의적인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교에서와 유사하게 아가의 신랑을 하느님이나 그리스도로, 신부를 교회로 보는 집단적-역사적인 해석 외에 신부를 개별 영혼으로 보는 해석이 발달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리스도교의 첫째 아가 주석이라고 일컬어지는 히폴리토(Hippolytus, 200년경)의 주석에서는 아가가 말씀의 육화를 노래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아가 2,8에서 산들과 언덕들을 넘어 뛰어오는 연인은,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육화하신 말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말씀의 육화는 말씀이 한 개별적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으로 이해되기보다 말씀의 신성이 인성 자체와 결합한 것으로 이해되므

3. 타르굼의 아가 해석 참고: 피에르 그렐로, 타르굼, 이기락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8), pp.178-182 참조.

로, 그의 아가 이해는 집단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아가는 그리스도교회가 구약의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스도교의 아가 해석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히폴리토와 거의 동시대인인 오리게네스(Origen)였다. 이후의 영적인 해석들에 미친 영향 때문에 흔히 오리게네스는 아가에 대한 순전히 영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헤사플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성경의 문자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인 인물이었고, 그는 자구적인 의미에서 아가를 솔로몬이 만든 축혼가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육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을 구별했고, 그들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자구적 의미는 우의적이거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영적으로 진보한 인간은 아가를 교회나 개별 영혼과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아가 1,2를 인용하자면, 그는 “제발 그이가 내게 입 맞춰주었으면!”이라는 기원이 메시아에 대한 교회의 갈망을 표현하고 또한 영혼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하느님 말씀으로부터 입맞춤 받기를 갈망함을 표현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아가의 해석이 이러한 영적인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여겼으므로, 육적인 인간이 이 책을 관능적인 노래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아가를 읽지 말 것을 권고한다. 그는 유다교 안에 소년들에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에제키엘서 첫 부분의 병거 발현, 에제키엘서 마지막의 성전 재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아가를 가르치지 않는 관습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육적인 사람이 아가를 읽을 때에는 마치 성경이 육적인 욕정을 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오리게네스의 영적인 해석은 여러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른 시기의 중요한 작품로는 니사의 그레고리오(Gregory of Nyssa)가 쓴 아가 주해가 있는데, 여기서 아가 1,2는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기에 이른 인

간의 영혼이 하느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이후의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말 번역본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Bernard of Clairvaux)의 아가 주해와 십자가의 성 요한(St. John of the Cross)의 「영가」가 있다. 여기에서도 아가 1,2에 대한 해석을 살펴본다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는 이 구절이 “옛 성조들의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염원과 경건한 기다림의 감정을 풍겨준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안에서는 이러한 해석들이 주종을 이루었다.⁴

2.3. 자구적 해석에 대한 부정적 이해

자구적 해석은 처음부터 있었다. 라뻬 아키바가 자구적 해석에 강하게 반대했고 탈무드에서도 아가를 통속적인 노래처럼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는 그만큼 초세기에도 아가를 현세적인 사랑의 노래로 부르는 이들이 없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유다교에서나 그리스도교에서나 우의적 해석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대에 자구적 해석을 주장한 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몁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Theodore of Mopsuestia, 4-5세기)였다. 그는 안티오키아 학파의 대표자로서 아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대해서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우의적 해석을 거부했지만, 특히 아가의 경우 그의 자구적 해석은 눈에 띄는 것이었다.

그가 아가의 우의적 해석을 반대한 첫째 이유는 아가에서 하느님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참고로, 현대의 주석자들에게도,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 아가에 하느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것은 아가가 순전히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느님에 대해 간접적으로 말하는 지혜문학의 특징에 속한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그의 저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9세기 이쇼다드(Ishodad)의 증언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따르면 몁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는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옹호하기 위해 아가를 썼다고 보았다. 히브리인

4. 성 베르나르도의 아가에 대한 강론 참고: 가톨릭 다이제스트 2000년 1-2월, “성 베르나르도의 아가에 대한 강론”, 안응렬 역 | 십자가의 요한, 「영가」 (방효익 역).

들이 파라오의 딸의 외모를 비웃었으므로, 솔로몬은 왕비와 파라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왕비를 기리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아가의 자구적 해석을 지지한 몁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가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 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공의회에서 단죄되었다.

* 주의할 부분: 아가를 자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우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가의 경전성 문제는 별개이지만 서로 연관된다. 또한 이 문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좌우된다.

2.4. 자구적 해석에 대한 긍정적 이해

자구적 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배경은 문예부흥과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서서히 마련되어 갔다.

문예부흥 시대의 인본주의는 현세적 실재들이 그 자체로서 가지는 가치를 긍정했다. 연대상으로 보면 15-16세기는 십자가의 성 요한과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의 신비주의적인 아가 주해의 시대였지만, 비슷한 시기에 에라스무스(Erasmus)는 성경 본문의 역사적이고 자구적인 의미를 주장하면서 아가가 솔로몬과 이집트 공주의 혼인을 기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뒤를 이어 17세기에 휘호 흐로티우스(Hugo Grotius)는 아가를 헬레니즘 시대의 문학과 비교하여 그 유사성을 부각하면서 이 노래가 세속적인 연애시라고 주장했으며, 보쉬에(Bossuet)는 아가를 7일간 계속되는 동방의 혼인 축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이 몁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들은 아가가 비록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하지만, 성경에 속해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낭만주의에 이르러 헤르더(J.G. von Herder)는 아가가 인간적인 사랑을 고귀하게 기리고 있으며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당하게 경전에 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아가의 정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의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⁵

이러한 경향은 계몽주의에 의해서도 이어진다. 그런데 계몽주의에서는 인간적 학문의 자율성을 넘어 신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경 해석을 주장하여 때로는 성경을 다른 역사 문헌들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종교개혁 또한 성경 본문을 교회 전통으로부터 풀어 놓으려 했지만, 초기 종교 개혁자들은 아가에 대한 여러 형태의 우의적 해석⁶을 이어갔고 또한 이들은 신앙을 배제한 해석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근대 이후로는, 우의적 해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주류를 이룬 것은 자구적인 유형의 해석들이었다. 여기에는 다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가를 하나의 극(drama)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주해자로는 야코비(T.C. Jacobi)가 있었다(1772). 이전에 오리게네스나 로우드(Lowth)도 아가가 몇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는 극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나 이들은 그러한 극이 다른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던 데에 비하여(우의적 해석), 야코비는 아가의 주제가 목동과 양치기 여인의 사랑이라고 보았다. 목동과 결혼한 양치기 여인을 솔로몬이 부귀 영화로 유혹하여 하렘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여인은 끝까지 자기 남편

5. "18세기에는 신심 깊고 재능이 뛰어난 독일 시인이며 비평가 헤르더에 의하여 아가의 우의적이고 신비적인 해석이 심각하게 흔들렸다. 그는 히브리 시문학에 대한 뛰어난 감각으로 문학적 아름다움을 애호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었다. 헤르더(1778)는 아가 안에서 명백한 의미, 곧 자구적인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우의적인 해석을 하는 이들이 상식을 어기며 문학적 및 언어적 분석을 위한 규칙들을 만들어 내었다고 고발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아가는 참되고 정결한 사랑의 여러 단계들이며 이 책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아름다움과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헤르더는 이 시 전체가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랑이 시작에서부터 성숙해 가는 것을, 그리고 그 열매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 책이 단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는 보지 않았고 개별적인 노래들의 모음이라고 보았다."(Pope, 131)

6. 개신교의 우의적 해석의 예(Brightman).

1,1—4,6 다윗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4,7—8,14 교회의 역사.

5,8 개신교의 시작. 모여든 이들은 1160년에 연인을 찾았던 Peter Waldo.

5,9-10 인노첸시오 3세의 반 그리스도교적 무리에 맞선 알비파의 전투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5,12-17 여러 사람들의 가르침에 연결지음(예를 들어 John Wicliffe, John Huss 등)

6—8장 루터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복구된 교회.

에 대한 사랑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아가를 극으로 보는 해석에는 다른 형태들도 있다.

한편 19세기에는 다마스쿠스 주재 프로이센 영사인 베츠슈타인(Wetzstein)이 동방의 혼인 관습을 소개했는데, 몇몇 주해자들은(Budde, Dalman 등) 7일간 열리는 혼인 주간의 관습에서 아가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들을 발견하여 아가가 혼인 예식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아가 전체의 구조가 혼인 예식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해도, 남녀를 왕과 왕비로 묘사하는 것이나 아가 4,1-7; 6,4-7 등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문학유형 등은 시리아와 팔레스티나, 또는 아랍의 혼인 관습과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해석은 19세기 말 한동안 아가 연구를 주도했다.

20세기 전반에는 아가를 메소포타미아에서 주로 이루어진 성혼례 예식과 비교한 경신례적 내지 신화적 해석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수메르와 아카드에서는 새해에 부부 신들을 나타내는 여사제와 임금이 풍요를 기원하는 성혼례를 거행했는데, 아가의 본문이 이러한 예식들과 관련된 메소포타미아의 본문들과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주석성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0, pp.1847-1848 참조). 아가의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이 본문들과의 비교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 본문들과 아가의 유사성이 제한적이고 특히 이 본문들이 사랑과 성에 대해 표현하는 방식은 아가와 매우 차이가 있다.⁷

그러나 근래에는, 아가와 가장 가까운 병행은 이집트의 문학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아가 4,1-7 등의 문학유형을 언급했는데, 시리아와 아랍에는 신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예는 없다. 아가 5,10-16에 나타난 남자 연인에 대한 묘사는, 이집트에서 하던 신상들의 묘사에 더 가깝다. 또한 아가 2,8-17과 5,2-8에 나타나는, 연인의 문밖에서 사랑을

7. 수메르의 성혼례와 산/저승 신화에 대해: 『성서와 함께』(1997. 2), 65-72쪽 참조.

구하는 노래들은 그리스-로마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 먼저 있던 형식이다. 그 외에도 아가의 여러 표현들은 이집트의 사랑 노래들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가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이집트의 노래들은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시들이다. 이러한 병행은 아가의 자구적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3. 아가의 일차적 의미

3.1. 자구적 해석을 위한 근거

아가의 본문 자체도 자구적 해석을 지지한다.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는 아가에서 하느님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아가가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 논거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가 8,6에서 하느님이 언급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두터라도, 하느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영적인 영역을 배제한 인간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아가 본문을 읽을 때에 그 안에는 자구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여러 차례 예로 든 아가 1,2, “아, 제발 그이가 내게 입 맞춰주었으면!”이라는 구절을, 연인의 입맞춤을 갈망하는 여인의 기원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바르비에로는 아가 8,5를, 아가의 본래적 의미가 우의적인 데에 있지 않음을 보이는 증거로 제시한다. 여인이 말하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는 당신을 깨웠지요”라는 구절을 우의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이든 개별 영혼이든 어떤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일깨웠다는 의미가 되고, 이어서 나오는 “거기에서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잉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을 낳으신 분이 당신을 잉태하셨습니다” 역시 하느님께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자. 유다교에서 아가의 자구적 해석을 배격한 이유는 인간적 사랑을 기리는 노래가 성경의 전체 맥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몸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가 아가가 영감받은 책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 역시, 아가가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한 책이라고 본 그에게 그러한 내용은 성경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받기에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인간적 사랑을 기리는 찬가는 구약성경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가?

구약성경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첫째 진술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세계관과 인간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창세 2,18)이었다. 혼자 있던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알맞은 협력자”(창세 2,18)를 만들어 주시자, 인간은 환성을 올린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창세 2,23) 이것이 구약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말이다.

그렇다면 “사랑에 취하여라”(아가 5,1)라고 말하는 아가가 구약성경의 전통에 이질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창세 1—2장이 구약성경 인간 이해의 전부는 아니다. 창세 1—2장은 3장과 함께 읽을 때에 완성된다. 그러나 자구적으로 읽은 아가의 인간관은 분명 창세 1—2장과 공통되며, 그 내용 때문에 성경에서 배척되어야 할 것은 결코 아니다. 아가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창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 자체가 신학적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4. 본문의 예: 아가 2장; 4장; 8장 6—7절

5. 아가가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

아가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들을 지적해 본다.

먼저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아가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 출산이라는 측면보다 우정, 애정의 차원을 강조한다. 아가 4,8—5,1에서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 표현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는 여인이 “신부”라는 점은 분명하다. 곧 아가의 남녀 주인공은 실제로 한 쌍의 부부이다. 그러나 이 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 전체에서 그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은 “나의 애인(*ra'yāti*, 내 친구)”이고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나의 연인(*dōdī*)”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가에 출산이라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4,2의 “양 떼”, 6,5의 “염소 떼”, 6,6의 “어미 양 떼”, 7,3에서 사용된 “밀 더미” 등은 다산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은 오직 출산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두 연인 사이의 애정에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성혼례와 아가를 비교할 때의 차이점도 여기에서 드러난다. 성혼례에 관한 메소포타미아의 본문들에서 사랑과 성은 풍요다산을 위한 수단이라는 가치를 지니지만, 아가에서 이들은 그 자체로서 기쁨의 원천이고(“오, 사랑, 환희의 여인이여!”, 7,7) 감미로움이며(“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합니다”, 1,2) 감탄의 대상이다(“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4,10). 이 사랑은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아가는 이러한 사랑 자체를 즐기라고 초대한다(“먹어라, 벗들아.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 5,1).

또한 아가는 사랑이 외부의 어떤 법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사랑 자체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주오,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라는 후렴구이다(2,7; 3,5; 8,4).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멈출 때를 결정할 수 없으며, 사랑 자체가 충족될 때까지 그 사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가의 오빠들과 파수꾼들은 사랑에 부과되는 외부적인 법칙들을 나타낸다. 아가에서,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 달리 오빠들은 사랑에 강제적인 규칙을 부여하려 하는 가부장적인 사회 체제를 대변한다. 1,6에서 오빠들은 누이동생이 사랑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일에 매여있게 하려 하고, 8,8-9에서는 누이동생이 아직 사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오빠들의 관심사는 훌륭한 구혼자와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제도가 - 아가에서 가족이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빠들은 그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 사랑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이러한 제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오빠들은 동생에게 포도밭을 돌보게 했지만 누이동생은 자신의 포도밭을 지키지 않고 사랑을 찾아 나섰고(1,6), 누이의 혼사를 막으려 하는 오빠들에게(8,8-9) 누이동생은 오빠들이 없어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랑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8,10). 파수꾼들⁸ 역시 사랑을 찾아 돌아다니는 여인을 막는다.(5,7) 그러나 여인은 밤에 성읍을 돌아다니며 연인을 찾는다.(3,2; 5,7) 밤의 어두움도, 파수꾼들의 난폭한 행위들도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아가에서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연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여인에게 연인의 친구들이 “양 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양치기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새끼 염소들이 풀을 뜯게 하오”라고 대답하는 1,8이다. 위에서 염소는 풍요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임을 언급했는데, “그대의 새끼 염소들”은 여인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갈망을 나타낸다. 그 갈망을 따라가면 연인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인간 자신의 본성에 속한다는 점이다. 사랑은 누가 억누른다고 해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가능성이며, 다만 그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집의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입니다”(8,7)라는 표현은 아가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비유나 상징이 아닌 명백한 표현으로 이를 밝혀준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는 것은 사랑이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며 강제로 사랑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대비되는 표현이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합니다”(8,7)이다. 폭력적인 힘으로 사랑을

8. 아가에 등장하는 파수꾼들은 헬레니즘 시대의 제도로서,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이 아가의 주인공을 때리고 옷을 빼앗은 것은 밤중에 돌아다니는 그녀를 창녀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만들어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는 것은(8,6)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사랑도 물리칠 수 없는 것임을 말한다.

아가가 무질서한 사랑에 동조한다는 말은 아니다. 아가에 따르면 무질서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지 않은가? 사랑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사랑은 자연 질서를,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한다. 아가에서는 봄이 사랑의 때라고 말한다.(2,11-13) 자연이 되살아나고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는 때가 사랑의 때이다. 겨울에 강제로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사랑은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사랑에 대한 아가의 독특한 이해가 나타난다. 그것은 아가가 사랑을 의무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이라고 이해한다는 점이다. 사랑은 강요할 수도 없고 억누를 수도 없는 것이다. 때가 되지 않았다면 사랑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7,13) 남녀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는 자연의 때가 되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남녀가(이 구절에서는 특히 여인이) 사랑을 하기 위한 때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아가의 주인공인 여인은 스스로 그때를 기다려야 함을 안다.

가족의 긍정적 역할도 이러한 맥락 안에 자리한다. 아가는 사랑을 자연에 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이 싹트는 장소는 자연 속에서다. 2,10-14에서는 여인을 봄의 들판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8,12-14에서는 여인이 자기 연인을 밖으로 부른다(“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그러나 사랑이 완결되는 것은 “나를 가르치시는 내 어머니의 집”에서다.(8,2) 아가에서 아버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반면 남녀 모두의 어머니가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어머니는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아가 3,11에서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었다고 말하는데 이 역시 밧 세바가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을(1열왕 1장 참조)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날” 그가 사랑으로 꾸며

질 수 있게 했음을 의미한다. 사랑은 자연에 속한 것이면서, 혼인과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아가는 사랑을 위하여 간직한 정결의 가치도 알고 있다. “그대는 단헌 정원, 봉해진 우물”(4,12)이라는 표현과 “이 모두 내가 당신을 위하여 간직해 온 것이랍니다”(7,14)라는 여인의 말은, 여인이 한 사람의 연인에게만 사랑을 허락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누이동생의 사랑을 가로막으려 하는 오빠들에게 동생이 “나는 성벽”(8,10)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빠들이 가로막는 것을 물리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이 여인 스스로 사랑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윗 단락에서 말한 “사랑의 때가 된다”는 것은 여인 스스로 그러한 성숙성에 도달했음을 전제한다. 만일 여인 스스로가 그러한 질서를 유지할 줄을 모른다면 실제로 오빠들의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아가의 여인은 어떤 경우에 사랑의 가능성을 실현하는가? 아가의 여인이 보여주는 매우 현대적인 면모는 그 여인이 지닌 뚜렷한 자존감이다. 필자는 아가의 사랑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바로 그 자존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가의 여인이 오빠들의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사랑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재산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는 이들을 경멸한다.(8,7) 아가의 여인은 방비된 도성과 같다(“기를 든 군대처럼 두려움까지 자아낸 다오”, 6,4; “그대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 탐과 같구려”, 7,5 등). 그녀는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난다”고 일컬어지지만, 동시에 “기를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여인”(6,10)이고, 연인까지도 그 사랑을 두려워하여 “내게서 당신의 눈을 돌려주소”(6,5)라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아가가 인간의 본성인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인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아가에서, 그 여인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연인의 사랑뿐이다(“내 위에 걸린 그 깃발은 ‘사랑’입니다”, 2,4). “나는 성벽, 내 가

슴은 탑과 같아요. 하지만 그이 앞에서는 화평을 청하는 여자랍니다”(8,10)라는 표현은 특히 의미가 깊다. 성벽과 탑은 방어시설이다. 앞의 문맥에서 이 표현은, 여인이 사랑을 구하는 이들에게 쉽게 사랑을 허락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데 오직 “그이 앞에서” 그녀는 화평을 청한다.⁹

아가의 여인이 사랑에 정복되는 과정에서는 연인의 “경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가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의견을 정설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가 안에서는 남녀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찬가들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성경」의 단락 구분과 소제목을 따르다면, 아가 4,1-7,9-11에 “신부에 대한 찬가”가 있고, 아가 5,10-16에는 그 신부가 “나의 연인”을 묘사한 노래가 있다. 신랑은 6,4-7에서 “그대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7,2-10에서 다시 “아름다운 애인”을 묘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노래가 셋, 그리고 신부가 신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노래가 하나다.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1,15; 4,1), “정녕 당신은 아름다워요, 나의 연인이여”(1,16)로 요약되는 이 노래들은 남녀가 서로의 가치를 알아봄을 드러내며, 남녀가 서로를 찾지만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다음에 자리하면서 그들의 만남을 준비한다.¹⁰ 연인들의 만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남녀 모두가 실패를 겪는다. 여인의 창문 밖에서 여인을 불러도 여인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2,8-14),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한”(3,1) 여인은 밤에 성읍을 돌아다니며 연인을 찾아야 한다. 5장에서는 그들 남녀 모두가 겪는 실패가 표현된다. 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지만(5,2) 여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얼마 후에 문을 열어주었을 때에는 이미 연인은 떠나고 없다(5,6). 남녀 모두,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은 다음 비로소 연

9. “화평을 청하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어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화평을 청하는/항복하는” 또는 “발견한”으로 해석할 수 있고, 속어적으로 “호의를 입은”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앞 구절에서 묘사하던 방비는 무너진 상태다.

10.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노래들은 아랍의 문학 양식인 와스프(wasf)의 예들이다. 그러나 아랍에는 신랑을 묘사하는 노래는 없다. 이집트의 경우 군주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들이 있는데, 아가 5,10-16의 경우 이들과 병행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경탄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경탄을 통하여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가운데 남녀는 서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것이 된다.

아가는 사랑을 긍정한다. 사랑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밤의 공포에 대비하여”, 3,8).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을 악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나는 내 연인의 것, 그녀는 나를 원한답니다”(7,11)라고 말할 때에도 거기에는 탐욕에 대한 경계가 없다. 아가에 나타난 남녀의 관계는 흠이 없는 것, 손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아가의 사랑은 낙원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여러 저자들은(Barth, Lys, Landy 등) 아가를 창세 2장과 비교한다.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경탄하는 아가와 가장 가까운 성경 본문은 창세 2,23의 환호성이다. 알몸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몸을 가리려 한 창세 3장의 부부와는 달리, 이들은 알몸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창세 2,25)¹¹

사랑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구약성경의 전통에 기초한다. 아가가 사랑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조의 선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고, 창조의 선성은 구약성경의 세계관의 바탕이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¹² 원칙적으로 여기에는 인간의 성도 포함된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면(창세 1,26),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사랑을 보며 하느님을 기릴 수 없는가? 인간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뵈울 수 없는가? 창세 2장의 맥락 안에서 성은 하느님의 선한 창조물로 여겨진다. 메소포타미아의 성혼례 전통에서와 달리 남녀의 결합은 신들의 결합을 모방하는 것이나 풍요를 기원하는 예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창세 2,18)고 여기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인 이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 신학에서는 인간의 자유,

11. 아가 7,2-10에서 여인은 둥근 허벅지, 배꼽, 젖가슴을 보이며 춤을 추고 있다.

12. 아가보다 후대의 본문인 지혜 11,24도 인용하고 싶다.

이성 등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창세기에서는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라고 말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첫 모습, 죄로 남녀의 관계가 손상되고 인간의 본성도 상처를 입기 이전의 인간 모습이 아가에 그려져 있다. 이것이 현실적이라기보다 이상적인 모습이고, 인간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아가를 읽으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창세 1—2장은 창세 3장과 함께 읽어야 하고, 인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인간의 나약함과 비참함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아가가 말하는 사랑에 관한 본고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그 사랑의 특징들과 더불어 반드시 짚어두어야 할 것은 현실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간, 우리가 만나는 남녀의 관계가 창조된 그대로의 상태는 아니라는 진실이다. 그러나 아가가 창조의 선성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는 것은 - 창세기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 그 창조가 손상되었음을 몰라서가 아니다. 죄로 손상된 이 세상을 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에, 눈앞에 보이는 죄악보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선성이 더 강하다고 믿기에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모험을 보여준다. 창세 3장을 이미 알고 있는 저자가 창세 1장을 그 앞에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가의 저자도 쉽게 죄로 떨어질 수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간직하는 것이다.

6. 아가의 여러 의미들의 관계

아가의 해석사를 통하여 아가의 본래적인 의미가 인간적 사랑을 노래하는 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가를 하느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인간 영혼의 사랑에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본문과 동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 일차적 의미와 전이된 의미는 구별되고,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이 아가의 일차적 의미는 아니다. 그 본래적 의미를 배제하고 아가를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

제를 비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하느님의 충실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는 인간적 사랑을 주제로 하는 아가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머피는, 히폴리토나 오리게네스와 같은 이들의 우의적인 아가 해석이 임의적이고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거나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적절치 못한 주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보는 견해들을 반박한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우의적 해석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사목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이 성경의 단일성을 바탕으로 하여 구약을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임을 강조한다.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된다면, 구약에 나타난 하느님의 자기 계시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우의적 해석을 통하여 아가가 지니게 된 의미는 비록 전이된 의미에서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가를 전이된 의미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 사랑 자체가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가의 해석이 자구적 의미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이, 그리고 아가가 지닌 신학적 차원이 잊힐 수도 있었다.¹³ 실상 아가에서 하느님은 전면에 언급되지 않는다.¹⁴ 그러나 아가를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읽을 때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 차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아가와 성경의 다른 본문들 사이의 연관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적 사랑 사이에 분명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면, 아가를 전이된 의미로 읽는 것은 그러한 예언자들이 사용한 비유와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13. 아가의 심리학적 분석이나(Krinetzki) 아가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에서(Keel) 이러한 위험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14. 아가 8,6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앞서 유다교의 우의적 해석을 마무리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가가 이스라엘과 하느님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본 유다교의 해석은 예언자들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호세아에서 비롯되는 이 전통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것이 되고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시는 계약 관계를(탈출 19,5-6 참조) 부부 관계의 표상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실상,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정식으로 요약되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관계는 바로 아가에서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아가 2,16; 6,3; 7,11)이라는 후렴구로 표현되는 부부 관계에 비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혼인의 비유로 나타내는 것 또한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러한 표상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영혼과 그리스도의 관계와 부부 관계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러한 전통을 역방향으로 적용하여, 아가가 노래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을 그려 보이는 비유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가가 남녀 간의 사랑이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생겨나거나 저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자연적인 법칙을 따르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에 의하여 얻어질 뿐 다른 가치들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위험을 내포하는 두려운 것으로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창조의 선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유일한 상대방에 대한 전적이고 흠 없는 충실한 사랑을 기린다면,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은 신적인 사랑에서 더욱 완전하게 실현되는 특성들이다. 인간적 사랑은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히 간직하면서 하느님 사랑의 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비유가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서로 사랑하자고 권고하면서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1요한 4,7)이라고 말한다. 인간적인 사랑이 현실적으로 지닌 모든 한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의 가치를 믿는 것은 그 사랑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심어주신 당신의 모상에 속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사랑은 하느님

의 선한 피조물인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아가 본문을 읽을 때 찾아낼 수 있는 여러 층의 의미들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할 때, 아가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 사랑이 나타내 보이는 신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된다.

요셉의 용서에서 느낀 하느님의 사랑

조운용(효주아네스)·1학년

근래 몇 년 동안 창세기의 요셉 부분은 항상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읽기가 불편했다. 청년성서모임에서 그룹원, 봉사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창세기는 계속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성조 부분을 피하고 싶은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이 하느님을 직접 만난 위대한 성조들이지만 인간적인 한계도 많았기 때문에 친근한 느낌이 든 반면, 의인 중의 의인이라 불리는 요셉은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다. 2009년 우연히 시작한 청년성서모임 그룹 공부에서 요셉을 처음 접했을 때는 반감까지 들 정도였다. 심지어 ‘용서’를 통해 얻게 된 자유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봉사자에게, 요셉은 소위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출세를 했으니 식량을 구하러 온 이복형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 아니겠느냐, 일종의 승자의 여유일 것이라고 빈정대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요셉과의 첫 만남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게 이루어졌고 곧바로 창세기 그룹공부를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공부도 신앙생활도 예전처럼 흐지부지한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 당시 다니고 있던 로스쿨에서 학업에 치중하면서 성경은 물론이고 하느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그때는 그것이 시간을 아끼고 내 미래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근시안적인 잔꾀에 불과했던 것 같다.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찾지 않던 나는 세속적인 욕심으로 시작한 공부에 지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학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컸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부모님과 의 갈등이었

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나를 패배자로 몰아붙이며 학업을 중용하시는 부모님의 반응은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했지만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졸업하면서 치른 변호사 시험에서도 불합격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때에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괴로움보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큰 짐으로 남았다. 졸업 이후,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미움은 더욱 깊어졌다. 방황하는 딸을 보면서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시 요셉과 마주하게 된 것은 2013년이 되어서였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아무 의미도 없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던 당시, 산책 도중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우연히 근처 성당에 들어갔다가 몇 년 만에 미사까지 드리게 되었고, 그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를 얻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솟아났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체험한 성령의 작용이자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이후 오랜 냉담을 풀고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 청년성서모임에 등록해서 그룹 활동을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다시 창세기 노트정리를 하며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름대로 신앙이 뜨거워졌다고 느꼈지만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따로, 일상생활 따로인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특히 창세기 막바지, 요셉 부분에 들어와서 내심의 큰 갈등을 겪었다.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오만한 면을 가진 약간 알미운 아이이긴 했지만 큰 잘못도 없는데 이복형들에 의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 갖은 고생을 다한 요셉, 얼마나 화나고 억울했는지 예전보다는 좀 더 가깝게 다가왔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요셉은 하느님의 보호 아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원수 같은 형들과 해후하여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싼다. 나는 처음 요셉을 접했을 때, 요셉의 사랑에 대해 빈정거렸지만 내가 가족과의 갈등과 괴로움을 겪은 이후 다시 요셉과 만났을 때에는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하느님 안

에서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간 요셉과 달리 미움과 원망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또 그런 내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그러나 오롯이 내 힘만으로는 그동안 쉽게 생각하던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름대로 하느님께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2013년 이후에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계속되었고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였다. 내 피붙이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감히 말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요셉 같은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기 위해 노력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창세 45,5) 요셉 이야기에서 마음에 크게 다가온 이 구절을 자주 떠올리며 분노와 원망감으로 울컥할 때마다 묵주기도와 함께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식사 전 기도를 할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다. 그래도 요셉 이야기와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의식적으로 기도를 해나갔다.

기도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점차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세상의 눈과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용기도 생겼다. 그렇게 포기한 공부를 다시 하게 되고 시험에도 합격하여 잘 마무리 짓게 된 것이다. 포기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좌절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은 나날이었다. 그런데 4일간의 긴장되는 시험기간 동안 매일 시험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나도 모르게, 미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시험을 치르러 오고, 나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하느님의 깊은 섭리이자 이끄심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합격자 명단에서 내 수험번호를 발견하고 든 감정은 ‘기쁨’보다는 ‘감사함’이었다.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다. 아버지께서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처음 하신 말씀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였다. 딱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도 아닌 아버지께서 그 순간 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을까? 부모님과의 통화를 끝내고 바로 우리 본당으로 향했다. 성모님께 초를 바치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절두산 성지로 가서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십자가의 길’ 기도문에 맞추어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

그 이후, 나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움아맨 미움과 원망감에서 해방됨을, 정말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부모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이 내가 처음에 요셉에 대해 빈정거린 것처럼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움과 원망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괴감을 겪은 나로서는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또는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보살핌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믿는다. 요셉이 꿈풀이를 잘하고 파라오에게 인정을 받아 재상이 된 것도 하느님의 도움이었지만, 나는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과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렸을 것이다. 나 또한 부모님과의 갈등과 화해를 겪으면서 감사하게도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느님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있는 모든 곳에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



이순옥(로사)·4학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생활하면서도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듯이 아픈 시련이 계속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좌절감을 느낍니다. 저마다의 십자가 무게는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 위로의 말 속에서 ‘주님! 당신이 제 곁에 계시면 기꺼이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다잡아먹곤 했습니다. 깊은 밤, 조용히 제 50년 인생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유년 시절엔 잔병치레가 많은 아이였기에 할머니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으며 가정 공동체 안에서 착하고 선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20대엔 길고 긴 터널과도 같은 어둠의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면서 곱게만 자라 두려움 많은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낯선 환경은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활하면서 차츰 하느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관면 혼인 후 시작된 새로운 삶 속에서 주님을 잇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함을 느끼며 주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30대에 남편이 일찍 사업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예기치 않게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에 다니는 시어머님은 항상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 답답한 생활 속에서 내가 숨 쉬고 살 수 있는 돌파

구는 주님을 알고 위로받는 것뿐이라 생각하며 그때부터 조금 다른, 한 단계 오른 신앙생활에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다시 분가하였고 남편의 사업도 순조롭게 되어서 또래의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유한 삶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전 40대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모든 것을 청산했을 때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두 아이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식들에게 많은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함은 지금도 제 마음속의 가시가 되어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은 절실함 속에서 하느님을 간절히 찾게 됨을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약해지고 아픈 상처뿐인 남편은 본당에서 봉사하면서 차츰 치유되어 갔고, 저는 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 속에 가정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치고 아픈 상처를 치유받고 내적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언니의 조언에 따라 성령묵상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성경공부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과의 일치와 말씀 속에 살려는 지금은 아들의 취직이 조금 늦어도 주님의 이끄심이 있겠지라고 믿으며 아들을 응원하고 기다려 줍니다. 어렵게 회사에 들어간 남편이 힘들고 고단함을 호소할 때도 주님께서 담금질하여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고 위로합니다.

50대에 어렵게 탄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짧게 사무실 근무도 해봤는데 웬지 제 적성에 맞지 않은 듯하여 지금은 성당에서 친언니처럼 따르던 분이 하는 조그만 식당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장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언니의 말에 작은 고민도 없이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들은 왜 힘들게 일하느냐고들 하지만 같은 신앙인으로 내 일같이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며 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 또한 영업을 기술을 배우라는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 언니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언니의 세례명도 '로사'이기에 성당에서 오시는 교우분

들은 간판을 '두 로사의 집'으로 바꾸라고 농담도 합니다. 언니도 집안의 대소사나 특히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집안 얘기도 스스로없이 의논하며 저를 친동생같이 여깁니다. 이웃에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어 여기까지 왔음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생활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 생활해 나갈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먼저 죄값을 치르게 하고 다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저도 주님의 보살핌과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건 저를 이끄시는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주시리라.” (호세 6,1)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구경분(아우구스티나)·5학년

코린토 1서 중 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뚜렷이 적어놓은 13장에 가장 마음이 간다. 13장 중에서도 7절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 7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직장에 다닐 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쳤다.

나는 38년간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저학년용 담임하려면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해야 했다. 나는 부탁의 말을 하기 싫어서 늘 학년 희망서의 순서에 6,5,4라고 썼다. 그래서 교직 총경력 중 3분의 2가 고학년 담임이었다. 그중 6학년을 13번 맡았는데 해마다 새 학년을 맡으면 간혹 가다 특수한 아이들에 대한 메시지가 애들 이름 옆에 붙어서 온다. 전 학년 담임이 애를 먹었던 아이를 골라 요주의 인물 표시를 해주는 것이다. 때로는 아이가, 때로는 아이의 부모가 애를 먹이는 경우 똑같은 봉변을 당하지 말라고 친절히 알려주는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당시 믿는 종교가 없었는데도 아이들의 완고한 마음이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한 것이다. 모 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할 때 왕가위표가 세 개나 붙어서 내게 온 아이가 있었다. 일 년 내 학교는 오고 싶은 날만 오고 숙제는 하나도 안 해오고 공책은 오로지 한 권인데 한 번도 필기를 하지 않으며 무슨 말을 해도 귓등으로 흘려 교육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 아이를 만난 날부터 무조건 사랑 공세를 펼쳤다. 지각을 하면 결석을 하지 않아 고맙다고 했고, 숙제를 안 해오면 마음만 먹으면 아주 잘해줄 것이라고 했다. 혹시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아무도 모르게 귀엣말로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말해주거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처음에는 그런 말에 오히려 얼굴을 찡그리더니 날마다 변함없이 되풀이하여 따뜻한 시선과 따스한 말로 사랑을 퍼부었더니 어느 날부터 웃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자청하여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나섰다. 슬금슬금 공책도 챙겨오고, 말도 되지 않게 써오지만 숙제도 해왔다. 나는 그 아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묘약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이후로 나는 꼬리표가 붙어오는 아이들을 만나면 반가웠다. 내가 치유를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변하면 친구들이 놀라워하고, 학부모가 기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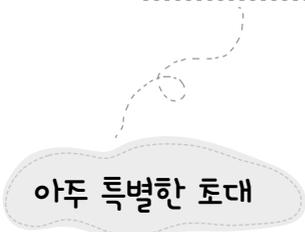
교사들 중 아이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선입견으로 나쁜 아이 취급

급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어 아이가 아파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나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무조건 사랑 공세를 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지금은 할머니가 된 나를 스승님이라고 찾아온다. 몇 팀의 아이들은 설 때 세배하러, 5월에는 스승의 달이라고 하여, 가을엔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나는 그 아이들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생님이 되었다.

내가 만약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와 아이들의 유대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은 수많은 교사들 중에서 나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한다. 사랑의 힘이 다른 사랑을 낳아 이젠 아이들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니 사랑의 힘은 한 군데에 고여 썩는 것이 아니라 흐르면서 더 큰 사랑으로 전달이 되는 것인가 보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동화 속에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었다.

참고로 사랑의 힘으로 어여쁜 아이가 된 사례를 동화로 표현한 [강화문학 제9집]에 실린 나의 동화 한 편을 첨부한다.



아주 특별한 초대

“미꾸라지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니가 꼬랑지를 흔들면 집으로 갈 꺼구, 니가 머리를 흔들면 학교루 갈 꺼구.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흔들어 보란 말야. 알았지?”

상우는 왕미꾸라지가 든 사이다병을 휘휘 내돌리다가 얹! 하고 기합을 넣으면서 왼손바닥에 사이다병을 올려놓았다. 깜짝 놀란 미꾸라지가 금방이라도 물 위로 솟구칠 것같이 병 바닥 쪽의 머리를 몸통 쪽으로 비틀었다. 상우의 눈에는 마치 미꾸라지가 머리를 세차게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너 머리를 흔드는 거냐? 그럼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냐?”

상우는 장수교 옆으로 머리를 내어 밀고 다리 꼭대기를 쳐다보았다. 저 멀리 구부러진 차도엔 차들이 쌍쌍 달리는데 인도로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까 미꾸라지를 잡기 시작할 때만 해도 우산을 쓰고 지나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다 어른들이 하나들 지날 뿐 학생들은 거의 지나지 않는다.

잠깐 망설이던 상우는 미꾸라지를 들여다보면서 무릎을 쳤다.

“그래, 이걸 교실에서 기르려고 잡다가 늦었다고 하면 되겠네.”

상우는 살이 두 개나 부러진 검정 우산을 찾아 들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서 우산을 쓰기가 어려워 간신히 앞쪽으로 거꾸로 멘 가방만 젖지 않도록 가렸다. 어차피 늦은 거니까 뭘 필요는 없고 그래도 책만은 젖으면 안 될 것 같아 몸을 잔뜩 앞쪽으로 웅크렸다. 다행히도 바람만 거세었지 빗줄기는 그다지 굵지 않았다. 하늘이 흰한 것을 보면 비는 금방 그칠 것 같기도 했다.

“선생님, 상우 지금 왔어요.”

교실 뒷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는데 성태가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사십여 명 아이들의 눈이 모두 상우한테 쏠렸다. 선생님도 깜짝 놀라는 눈빛으로 상우를 바라보셨다.

“상우야, 왜 이렇게 늦었니?”

5학년 때 같았으면 꿀밤이 먼저 올라갔을 텐데 6학년 선생님은 이름처럼 순하게 생기셔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다. 상우는 이때다 싶어 사이다병을 선생님께 당당하게 내밀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 드리려구요.”

다짜고짜로 내미는 사이다병을 받으려던 선생님이 움찔 놀라셨다. 여자 아이들도 우와! 소리를 질렀다.

“아이구, 놀래라. 이거 미꾸라지 아니니?”

선생님은 차마 병을 받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나셨다.

“야, 뱀 같다 뱀. 그거 미꾸라지 맞냐?”

아이들은 표정이 여럿이다. 징그럽다고 눈을 가리는 아이, 신기하다고 쫓아 나와서 보는 아이, 미꾸라지로 병이 꼭 찼다고 허풍을 떠는 아이... 순식간에 교실

은 아우성바까지가 되었다. 이제 교실은 더 이상 수학 시간이 아니었다. 미꾸라지 시간이 되었다.

변갑순 선생님은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결석을 밥 먹듯 하던 상우가 학교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징그러운 것을 참고 고맙다며 사이다병을 받아 교사용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주둥이에 수염을 꼿같이 단 왕미꾸라지는 병 속이 좁아서인지 몇 초에 한 번씩 용틀임을 쳤다.

첫째 시간이 끝나 선생님들의 커피타임이 되었다. 변 선생님은 사이다병을 들고 동학년 휴게실로 갔다.

“선생님들, 이렇게 큰 미꾸라지 보셨어요?”

선생님들도 사이다병 속의 미꾸라지 굵기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유난히도 몸통이 굵었다. 바로 그때 걸걸한 목소리의 6학년 부장 선생님이 입맛을 췌 다시며 말씀하셨다.

“야, 그놈 아주 맛 좋게 생겼네. 변 선생님, 그거 이따가 점심시간에 추어탕 끓여 먹읍시다.”

부장선생님의 제의에 선생님들이 모두 웃었다.

“아니, 부장님, 미꾸라지 한 마리로 무슨 추어탕을 끓여요?”

나이가 가장 어린 처녀선생님이 부장선생님 말씀에 토를 달았다.

“아이구, 선생님들 몰라서 그렇지 이 미꾸라지 정도면 우리 식구들 다 먹을 만큼 추어탕을 끓일 수 있다니까요. 자 자, 친목회장님, 라면 남은 거 있지요? 컵라면 말구.”

동학년 친목을 담당한 김 선생님이 라면상자 뚜껑을 열더니 빙그레 웃으셨다.

“부장님, 라면 네 개 남았는데요.”

“좋아요, 그럼 내가 점심시간에 그걸로 추어탕을 끓일 테니까 점심시간에 이리들 모이라구요. 오늘 점심 후식은 커피 대신 추어탕으로 할 테니까요.”

선생님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교실로 들어갔다.

점심시간 - 비가 언제 내렸더냐 싶게 해가 반짝 나왔다. 아이들은 점심을 먹고 대부분 운동장으로 나갔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선생님들은 휴게실로 하

나들 모여들었다. 휴게실 문을 열자, 라면 냄새가 진동하였다. 그런데 보통 라면 냄새가 아니라 정말 추어탕 집에 한 발 들여놓은 것처럼 추어탕 비슷한 냄새가 어우러져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났다.

“어머나, 부장님, 정말 추어탕 끓이셨어요?”

변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이 사람이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못 믿나? 아까 내가 점심시간에 추어탕 끓인다고 했는데 뜬금없긴, 허허허.”

블루스타 위에 올라앉은 커다란 주전자의 입에서 뜨거운 김이 허영게 솟구쳐 나왔다. 주전자의 뚜껑을 열면서 부장선생님은 동료들에게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을 돌렸다.

“자자자, 여기 나무젓가락하고 종이컵, 이 종이컵에 털어서 한번 맛들을 보시지. 냄새만 죽여주는 게 아니지요.”

선생님들은 점심을 먹고서도 종이컵에 라면을 한 컵씩 받아들었다. 참 희한하게 그 커다란 주전자에 미꾸라지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갔는데, 미꾸라지의 형체도 없는데, 어쩔 그렇게 미꾸라지 맛이 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점심을 금방 먹었는데 뭘 또 먹냐고 하던 이 선생님까지도 두 컵이나 먹었다. 그 별난 추어탕은 다 먹고 설거지를 했는데도 4층 전체에 추어탕 냄새가 진동했다.

점심시간이 끝나 교실로 들어오던 아이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떠들었다.

“야, 이거 무슨 냄새냐?”

“누가 라면 끓여 먹었나 봐. 라면 냄새 맞지?”

“육개장 냄새 아니냐?”

“추어탕 냄새하고 비슷하다.”

상우가 귀신같이 추어탕 냄새 비슷하다고 소리쳤다.

휴게실에서 나오는 담임선생님을 상우가 바짝 쫓아갔다.

“선생님, 휴게실에서 추어탕 드셨어요?”

“그래, 네가 아침에 잡아온 미꾸라지를 라면에 넣어 추어탕을 끓여 먹었다.”

“맛있지요?”

“그래, 엄청 맛있었다.”

상우는 신이 나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교실을 향해 뛰었다. 비가 오기만 하면 장수천에서 미꾸라지잡이를 하리란 결심을 하였다.

여름 장마가 끝나갈 무렵 변갑순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다.

“6학년 4반 선생님 맞으십니까?”

“예, 제가 6학년 4반 담임 변갑순입니다.”

“아, 예 저는 상우 아빠입니다.”

“예? 상우 아버지라고요? 상우 조금 전에 집으로 보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저 거시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변갑순 선생님은 상우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여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말문이 막혔다. 수화기를 든 채 마음을 가다듬는데 수화기 속에서 상우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생님,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신가요?”

“네?”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십사 하고요. 우리 상우한테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미꾸리탕을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요즘 장마철이라 개울에서 미꾸라지를 많이 건졌습니다. 내일 6학년 선생님들 모두 모시고 퇴근을 우리 집으로 하세요. 제가 미꾸리탕 끝내주게 잘 끓입니다.”

다음 날 6학년 선생님들은 모두 상우네 집으로 퇴근을 하였다. 상우네 집은 장수천변에 붙어있는데 베니어판으로 열기설기 지은 원두막 같았다. 아내도 없이 상우와 단둘이 사는 상우 아빠는 찌그러지고 커다란 양은 냄비 가득 미꾸라지가 뚝뚝 뜬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들깨잎을 손으로 푹푹 잘라 넣고, 대파도 손으로 푹푹 분질러 넣었다. 붉은 고추와 풋고추도 손으로 푹푹 잘라 넣었다. 마늘도 통으로 그냥 넣었다. 고추장도 풀었다. 지난번 휴게실에서 부장선생님이 끓인 추어탕보다 훨씬 맛있는 냄새가 났다.

“으허허허, 으허허허.”

상우 아빠는 선생님들께 소주잔을 건네며 너털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 상우가 말입니다. 지금 6학년 시절이 쯤로 살맛 난답니다요. 담임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상우를 그렇게 이뻐해 주셔서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우리 상우 말로 선생님들이 라면 미꾸리탕을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지요.”

상우네 집을 나설 때 상우는 아빠 곁에서 아빠와 똑같은 모습으로 허리를 90도 꺾어 인사를 했다. 장마가 걷히는 것인지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났다.

사랑을 태우는 촛불처럼

이승현(마리아) · 2015년 입문수로
투스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

야고보 서간을 읽을 때마다 수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이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상한 모습이 그려지곤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이 바른길을 걷게 하기 위해 해주시는 올바른 가르침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너무 값지고 너무 소중하기에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에서 전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서간을 필사하며 교황님이 반포하신 봉헌생활의 해를 살고 있는 저는 무엇이 진정한 실천이고 무엇이 진정한 가난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정한 도움을 베풀며,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도움,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복음화를 사는

것)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제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련기를 보내고 있는 저는 정말 수많은 약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이 힘들게만 다가오고 인정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삶을 닮기 위해 작은 희생들을 실천함으로써 하나씩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은 하루에도 수없이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수도자에게는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힘이 들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저를 합리화하며 다른 것을 통해 만족을 얻어내고 또 이런 합리화가 '영적 실천'이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것이 다가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에 끊임없는 합리화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주위 친구들이 말해줬을 때 강한 부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정말 깊이 묵상해 보았는데 이러한 나의 행동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수도자가 아닌 욕구대로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수도자가 되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희생과 실천 그리고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다짐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수도자,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아놓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시련'이란 단어가 야고보 서간의 첫 부분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야고 1,2), "시련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야고 1,12~) 그렇지만 이 글을 보면서 '시련을 겪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생각하지?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최근 제가 겪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다른 동기들보다 한 달 늦게 입회를 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모든 마음을 바로 접고 한 달 늦게 입회를 한 것입니다. 이곳에 오니 저와 함께 길을 걷게 될 4명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고유한 모습을 지녔고 서로 배운 것들도 다 달랐기에 또 너무나 활발한 친구들이었기에

우리는 수녀원의 '못 말리는 아이들, 말썽꾸러기, 웃음 못 참는 아이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한 명의 친구가 떠나게 되었고 또 5개월이 지나 한 명의 친구가 병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셋. 우리 셋은 푹푹 뭉치며 서로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 서로 도와주고 또 수련기를 함께 준비하며 동화책도 쓰고 셋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는 늘 함께 다니며 함께 서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래를 상상하며 할머니가 되어 복도에서 달리기 시합 하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기를 시작하고 3개월 뒤, 우리의 맏언니인 자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많이 아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강한 사람이었기에,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느님은 그 자매에게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고, 자매는 떠나기 하루 전날 밤 제게 편지를 주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떠났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힘들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두 명을 이끌며 정말 가족처럼 지내던, 친언니 같던 자매가 떠나고 나니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들고 다음 날 아침 성당에 가면 그 자매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기도와 미사 시간에는 고개를 숙이며 그 자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시련의 시간이 하느님과 나의 거리를 멀게 했고 묵상시간에는 온통 추억들만 떠올리다 눈물을 흘리며 지내곤 했습니다. 야고보 서간에서는 시련이 찾아올 때 의심치 말고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하느님께 의심을 품으며 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진 하느님으로 나타나는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셨는지, 왜 아프게 해야만 했는지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폭풍이 몰아친 2주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의 마음은 아직도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하느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인간에게 의지했고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가리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행복을 주지는 않았지만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었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내가 하느님께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것, 고통을 통해 나

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느님께 의지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작은 희생의 시작이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기도’를 적으며 저는 문득 예전에 성시간 준비를 위해 쓴 글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을 태우는 초

여기 우리들의 마음을 따스함으로 채워주는 초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는 예쁜 모양도 아니었고 크지도 않았습니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초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초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렴.” 초는 이렇게 하여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초가 전해주는 따스함을 받아들일 곳이 없어 그 사랑을 거절하며 활활 타오르려는 촛불을 끄려고 바람을 일으키다 결국 초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초는 자신이 고통을 겪는 중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순명과 기도로 뜨거운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도 더욱더 힘차게 타올라 우리를 따스함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초는 작아졌고 어느새 보일 듯 말 듯한 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눈에 초가 전해준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고 초가 혼자서 겪어낸 고통의 시간들이 마음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를 지켜주려 해도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 우리는 서서히 사라져 가는 초를 눈물로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그 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이제 곧 사라지겠지만 내 눈물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간다. 이 흔적은 영원히 너희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늘 함께하겠다.” 초는 더 이상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며 타오르던 초는 사라졌지만 그 초가 남긴 따스함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안아주었고 눈물의 흔적인 촛농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내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못난 모습도 다 받

아들이시어 우리에게 사랑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로써 이겨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인내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만족을 추구하고 기도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더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내 판단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찾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기묘하신 업적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수도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초처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위를 밝히는 수도자, 내게 다가오는 고통을 통해 주저앉기보다는 그 고통을 겪음으로써 더 많은 이를 안아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지닌 수도자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방식



이영순(소화테레사) · 이러닝학습 1학년

이번 기말고사 기간은 내 생업의 주기 가운데 가장 바쁜 시기에 있었다. 시골에서는 이 시기에 하루 쉬면 겨울에 열흘을 굶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쁘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깊이 공부하지도 못한 내가 묵상주제로 받은 신명기 6장 4-5절의 말씀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는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치열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하는 맘으로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리곤 하는데, 하나는 딸 아네스를 통해 얻은 질

문이고 또 하나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옥면이라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된 질문이다.

아네스는 지적장애를 동반한 자폐성장애 2급 아이로 고3이지만 유치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IQ, EQ, SQ로 매겨진 점수가 낮다고 해도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아이의 소원은 주일학교 미사에서 해설도 해보고 독서도 하는 것이다. 이 아이의 아침은 성가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주일미사 가는 날이면 집에서 독서연습을 무척이나 열심히 한다. 하지만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은 성당에서조차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조금만 도와 주면 충분한데도... 한번은 성주간에 비신자인 아이 아빠가 성당에 못 나가게 하니 입맛이 없다면서 아예 드러누워 버렸다. 이 모습을 보며 ‘아! 나는 한 번이라도 성당에 못 나가게 되었다 해서 밥맛이 없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없었다.

둘째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옥면이라는 여종의 이야기인데, 고단한 일상 중에도 옥면은 염불을 열심히 외워 결국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뭐 어쨌단 말이나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 여종의 삶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그런데도 옥면은 자신의 삶을 정말 치열히 살아 부처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는 나에게 또 질문을 던진다. ‘나는 한 번이라도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옥면처럼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있는가?’ 없었다.

내가 아네스나 옥면처럼 치열히 살지 못해도, 그래서 내 삶이 모순투성이 부조리의 삶으로 가득 차있다 해도, 주님은 내게 농부라는 가장 멋진 직업을 선물하셨고, 그분이 진심으로 축복하신 그 직업의 뒷에 내가 걸렸다는 것을 알기에 내 힘의 원천인 이 땅, 자연 속에서 내 농산물을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농사를 짓는다. 우습지만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오늘도 나는 사과 열매에 하나하나 봉지 씌우는 작업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시험기간도 끝나가고 마음은 급했다. 그래서 아네스를 사과나무 밑

에 얹혀놓고 내가 프린트해 놓은 교재를 읽어달라 했다. 따가운 햇살을 피해 나무 밑에서 읽어주었지만 덥고 목이 아프다 했다. 참 많이 미안했다. 하지만 “엄마 100점 맞아. 딸의 소원이야.” 이 한마디에 지금 졸음을 쫓으며 시험을 치고 있다.

주님! 이것이 아녜스와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녜스에게 축복을... 테레사에게 은총을... 아멘.

말씀으로 불타는 우리

새로 나는 어르신 성경공부는,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난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 발견,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 발견,
삶의 에너지 충전,
기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로 나는 어르신 성경공부는,
재미있는 교재와 성경필사,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접목하여 성바오로딸수도회와 인천교구, 광주대교구 등 많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교구 가평성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리아 성경학교' 어르신들이
담당수녀님께 보내주신 편지글과 어르신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우리는 성경학교 갑니다

이숙이 크레센시아 수녀님께 감사의 글을 몇 자 올립니다. 먼저 저희 가평성당에 이숙이 수녀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상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들은 행복했습니다. 수녀님의 강의를 들을 때는 옛날 학창시절도 떠오르며 즐거웠습니다.

성경학교 가는 토요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옥선 요안나 자매님과 '학교 갑시다' 하고 전화 통화하고 만나 같이 똑같은 가방을 들고 이웃 사람 만나면 '우리는 성경학교 갑니다' 하고 자랑하며 '참 좋으시겠습니다!'라는 인사도 받으며 정말 즐거웠습니다. 야외 나갈 때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 즐거웠습니다. 수녀님이 우리와 함께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서운하네요.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수녀님의 강의 들을 때는 어찌나 재미있게 말씀하시는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돌아서면 금방 머릿속이 텅 빈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배운 것이 머리에 떠오를 때도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가평성당에서 즐겁던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순옥(요안나) 드림

제가 언제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수녀님!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저희 가평성당 어르신 성경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성경을 세 번이나 필사하여 세 권의 책으로 묶어놓기까지 했는데도 솔직히 성경에 대해 너무나 아는 것이 없어 성경으로 선교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교에 입학하여 벌써 세 번째 종강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배우고 깨쳤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경학교를 통해 수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던 것을 하나씩 깨달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탈출기 파스카 축제를 중심으로 한 구약 전체,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신약 전체를 배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이라 불린 예언자들에 대해 배우면서 오늘날의 예언자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율동체조를 하고 크레파스로 그림도 그리는 등, 성경학교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언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매주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시는 수녀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강미사를 끝으로 수녀님의 강의도 끝나니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수업 끝나고 바삐 돌아가시던 수녀님의 걸음걸이를 기억해 봅니다. 또

열차 시간은 임박했는데 남이섬 길이 막혀 청평역까지 달리던 일, 야외 소풍 때의 일 등, 이런 일들이 이제는 수녀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지요.

수녀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가평성당 어르신 성경학교 학생들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저희도 언제나 수녀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차교식(베드로) 드림



개강하던 날, 수녀님과 함께 찰칵



부활맞이 귀여운 병아리 만들기 작업~
너무 양증맞쥬?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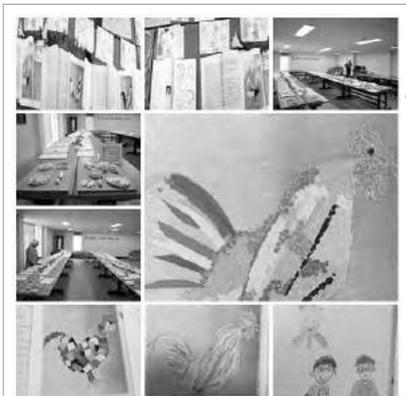
하하, 호호, 즐거운 소풍 🎵



구약 하가다 예절



지혜가 가득 담긴 어르신의 모나리자 미소



어르신 종강 작품들

6년 과정 마침표, 졸업을 축하합니다!



= 졸업 =

- 사전적 의미: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침.
- 통신성서적 의미:
하느님에 대해 알지 못하던 사람이 말씀 공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되어 조금씩 변화되어 간,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적인 과정의 마침이면서 또 한 번의 시작.

<즐겁고 행복하던 졸업식 현장을 전합니다!>

2015년도 제26회 졸업생은 모두 180명! ^^

말씀 공부를 시작한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신구약입문 2년, 신구약중급 4년의 6년 과정을 모두 끝마친 분들의 감격은 비슷할 것입니다. 2015년 2월 28일~3월 1일까지 이틀 동안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신구약중급 졸업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졸업연수회의 강의는, 부산교구 김정완 신부님께서 <성경의 수용과정과 각 성경책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하셨습니다. 과거 신학생 시절 교육원의 평가자이던 신부님과과의 친교로 연수회 내내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졸업'이라는 타이틀 앞에 선 학생들은 내내 진지하고 감격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짧은 쉬는 시간에도 서로서로의 시간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졸업연수회의 핵심!!

저녁 감사의 밤 시간은 통서가족 졸업생들이 정성으로 준비해 준 축하 환영식과 다과를 보고 많은 학생분들이 선배의 따뜻한 사랑을 느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토르르 흘리신 분들도 있으셨지요? ^^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재학생 여러분~ 우리도 졸업합시다! ^^)



6년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졸업장을 받다~



졸업을 축하해 주러 온 남편과 한 컷~



진리상을 받고서~



졸업장을 손에 쥐고^^



자랑스러운 졸업장을 안고 가족의 축하를~



드디어 우리 졸업했어요!!

하느님을 만나려 애쓴 그 감사한 시간들



최중욱(마누엘) · 26회 졸업생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재수생이던 1970년 어느 날,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닌데 부산의 대연동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큰길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지도 않은 그 성당을 왜 가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가게 된 것인지는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 신비한 일입니다. 이름도 기억 못 하는 수녀님의 도움으로 교리반에 등록하여 1년 여의 공부를 마치고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렵게 기억하기로는 제가 수녀님을 몹시 귀찮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되지도 않는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도 수녀님은 레지오 회합실 같은 데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수녀님께서 쉬는 시간에 읽어보라시며 제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아마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자에 관한 책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책을 읽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 아낙네가 신부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치고 추운 겨울밤에 갓난아기의 발이 어는 줄도 모르고 신부님을 찾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결국은 죽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또 돈 많고 존경받는 양반이 자기 재산 다 버리고 믿음을 찾아 교우들이 모여 사는 산골로 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자 교리를 받으면서도 그 내용들이 설명도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무언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해왔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한 것은 성경이었고 더 배워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울 곳도 시간도 없

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지금 저의 신앙의 스승인 아내를 직장에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만나고 보니 아내는 천주교 신자였고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시골의 귀한 아들들은 다들 가까운 절에 이름 한두 번 올리지 않은 아들 없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당연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 장남인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감이 천주교 신자라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침내 저는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코쟁이 외국 신부님의 주례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과정이 올 때마다 부모님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천주교 신자인 아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희 방에 있던 성물은 몇 번이나 땅속으로 생매장되는 수난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부모님께 천주교 신앙을 갖도록 계속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중에 마리아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받으시고 본당에서 신자들이 장례미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시는 은총을 누리셨습니다. 아버님은 절에는 가지 않겠으나 성당에 가자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시며 가지고 계시던 염주를 태워버리시며 자식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가톨릭 신문에서 '시청각 통신성서'에 관한 광고를 보고는 전부터 알고 싶던 그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를 등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간의 신앙생활이라야 집사람 때문에 의무감에서 성당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을 공부하면서도 그 알고 싶던 무언가는 역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내와 함께 교회 내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 들에는 미흡했습니다. IMF 때문에 저도 힘든 과정을 겪게 되면서 결국 통신성서 공부를 위한 짧은 시간마저도 낼 수가 없어 책을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생활이 힘들수록 하느님께는 더 매달렸습니다. 아내의 신심 덕분

에 그래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아내로부터 성무일도 바치는 법도 배웠고, 토요일만 빼고 매일 미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성전에 들러 아녜스와 함께 오늘 하루를 마치는 인사를 하느님께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나면 알 수 없는 내일은 또 내일로 두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뿌듯함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여 딸 아들 둘만 낳아 기르면서 유아 세례도 받게 했고, 아이들은 복사도 서면서 지내왔습니다. 잘못 선 보증으로 다시 제게 시련이 닥쳐와서 이제는 집도 공장도 모두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게 용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고마움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열심히 읽지 못한 성경도 읽고 새롭게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다음과 같은 글을 읽고는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책상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어느 날 성공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실패는 없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또 대답했습니다.

“실패도 하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이겨나가는 용기도 함께 주셨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에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하면서 살아왔는가? 박해 시대를 산 선조들의 믿음처럼,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감사하고 힘든 현실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는 언제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신앙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 자신이 참으로 교만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처음으로 돌아가자. 누구의 탓도 아닌 내 자신의 십자가인데, 처음 성당을 찾던 시절을 떠올려 보고 하느님을 새롭게 보려 노력했습니다. 60여 년을 참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나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그들이 마음에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콜로 2,2-3)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잊고 있던 ‘시청각통신성서’ 생각이 나서 어찌어찌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내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도 저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부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안내 말씀에 소름이 다 끼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놓고 ‘아! 하느님’ 하고 하느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택하여 찾았다는 어리석은 신앙 인입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꼭 성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다가갈 수 있고 내 신앙을 돌아보며 무언가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 교육원이 나를 기다려 주었다는 것 등에서 의욕이 생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일도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무언지 모를 힘이 생겼습니다. 매달 날짜에 맞춰 해야 할 과제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작했다 싶기도 하고 시련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제 날짜에 문제집을 제출 못한 일도 있고 두 과를 한꺼번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면 이 통신성서공부 과정이 제게는 제 신앙의 여정과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호기롭게 시작했다가는 좌절하고 또 시작하고

는 해매고, 그러나 이제는 억지로라도 마무리를 하고 나니 허전하기만 합니다. 마무리는 늦게 하였지만 이 공부가 많은 다른 신앙 공부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때때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법만 알아도 깨달음의 절반은 이룬 셈입니다. 침묵해야 고요해지고, 고요해야 타인의 소리, 하늘의 소리도 들립니다.”(릭 워렌의 「하느님의 인생 레슨」)

나는 얼마나 타인의 소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 왔는가? 내면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12번 성경 통독을 했고 지금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통신성서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책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살이를 접어두고 하느님을 만나려 애쓴 그 시간들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통신성서공부라는 한계성 때문에 부족함을 많이 느껴 더없이 넓고 깊은 하느님의 세상에 대한 갈망을 채우려고 제 나름대로 책도 읽고 한 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더 가까이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조금 추슬러서 ‘바로 영성과정’에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그동안 변변치 못한 문제집을 읽고 채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통신성서교육원 수녀님들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중급과정을 마치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기정선(가타리나) · 성바오로 신학영성 1학년

주님!

시숙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들과 대화하시는 것을 들으며 ‘참 지혜롭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적에 교회를 조금 다니다 말았지만 날마다 성경을 분량을 정해놓고 읽기를 계속하며 출장을 갈 때는 미리 읽어서 밀리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당에 다닌 지 10여 년이 되는 때까지도 한 번도 신구약을 완독한 적이 없던 나는 부러움을 느끼고 성경을 손에 잡았지만 언제나 창세기와 탈출기를 겨우 읽을 뿐 그 이상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2008년경 언니가 통신성서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드디어 입문을 하였습니다. 7년여가 걸렸지만 드디어 졸업을 앞두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끝마무리를 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기를 잘하는 내가 해냈다는 생각에 감개가 무량하고 뿌듯했습니다. 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수녀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옵 주님

날마다 하루를 주시면

그 하루 걱정과 앞으로 올 나날을 걱정하며

불안과 걱정, 불만에 싸인 시간들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던 날들과 달리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당신께서
이미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행복하고 기대되는 하루를 보내며
기쁘게 세월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30여 년 만에
이제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이웃을 만나며
나와 함께 울고 웃으시며
주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녀들에게 충고를 해야 할 때
주님
필요한 지혜를
성경에서 얻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품에 잠들 때까지
해마다 신구약을 통독하는 열정을 주시어
그 안에서 지혜를 하나하나 배우고

말씀을 듣는 재미를 느끼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요한 묵시록을 읽을 때마다
무섭고 난해하여 절망에 빠졌지만
믿는 이들에게
구원과 희망,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6-18)
내가 좌우명으로 삼은 말씀대로
기쁘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신 주님!
모든 영예와 영광이 영원무궁하시길 빕니다.

도약을 위한 발 구름!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과 통신성서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교육원에서 성경공부의 팁을 드립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어렵고 복잡한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성경공부를 시작한 입문 학생들은 뭔가 모를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 통신성서교육원이 있잖아요~ 교육원에서 공부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편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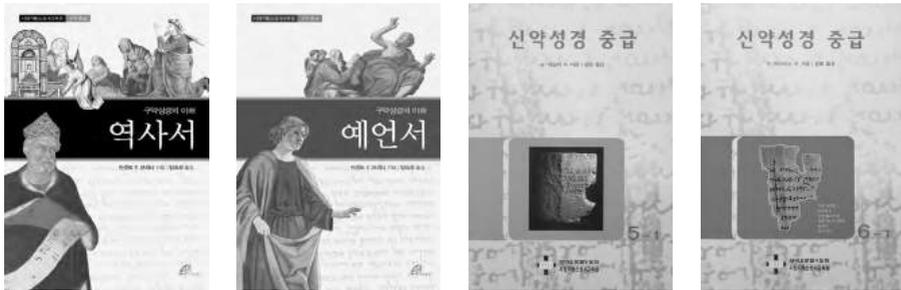
● 이제 막 통신성서를 시작했어요!(입문과정)



문제집을 짝~ 펴본 순간, 느껴지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기대? 또는 걱정? 입문과정은 신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도록 문제집 내용도 교재에 충실합니다. 괄호 문제, 선

긋기 문제, 찾아 쓰는 문제 등의 답은 교재에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교재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해 두고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십시오. 입문과정에서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평가자’입니다. 평가자의 평가와 보충 설명을 통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맨 뒷장 나눔터에 공부하면서 느끼신 것들이나 어려움을 평가자와 자유로이 나누시면 입문과정 공부를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한 학기를 총정리하고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 친교도 나눌 수 있는 연수회에 참석하시면 기쁨은 두 배가 되지요. ^^

● 이제 중급과정으로 올라가요~



입문과정을 마치고 나니 이제 신구약의 전반적 흐름을 짚~ 훑게 되었지요. 그런데 중급과정 이상이 되면 입문과정과는 느낌부터가 달라집니다. 주관식이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중급과정 이상은 확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암기나 글자 그대로의 이해가 아니라 훨씬 더 삶과 가까워지고 그 깊이를 이해하게 이끕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교재와 문제집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답의 기본 내용은 교재에 있습니다. 문제마다 관련 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적어놓았습니다. 반복해서 읽으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당 과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밑줄도 짚아~ 그어보시고 개인

노트에 교재 내용을 여러 번 써보시거나 필요하시면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편해지실 것입니다.

● 개인 생각과 체험 쓰는 것이 쉽지 않다구요?

자, 모든 과정 학생들이 호소하는 문제! 그것은 바로 생각과 체험을 쓰는 문제입니다. 난제로써! ^^ 누구나 생각과 체험을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웬지 모르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평가자님과 교육원에서도 읽어보니까 조금 더 멋진 표현을 적고 싶은 은근한 유혹도 밀려오지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또는 겪으면서) 성경에 비추어 나의 경험은 이러저러했다고 생각된다, 또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사실 생각과 체험을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연스레 지난 삶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살펴보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은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파이팅^^

● 교재가 어렵다구요?

네, 저희 교재가 아주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마치신 졸업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지만 과정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읽고 또 읽고 답을 찾고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학생분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교재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러닝학습(e-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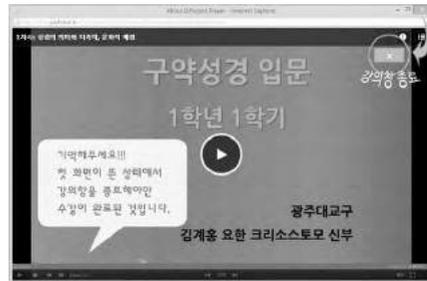
● 이러닝학습이 무엇인가요?

이러닝학습은 인터넷으로 하는 성경공부입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끄는 것과 교육원 홈페이지(<http://uus.pauline.or.kr>)에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닝학습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OK!

1, 2학기는 각각 13차시의 강의와 중간·기말고사·특강 2회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등록된 과정의 동영상 강의는 학기 내에 무한반복 청취하실 수 있으며, 강의 자료(pdf 파일)도 학기 내에는 언제든지 인쇄와 저장이 가능합니다. 출석 점수만으로도 이수(60점 이상)가 가능하니, 성실하게 강의를 수강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점수 배점: 출석 65점, 중간고사 15점, 기말고사 20점) 다만 출석기간 이후에 수강하신 경우에는 '지각수강'으로 표시되고, 출석 점수도 주어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수강하셔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이러닝학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방법은 [내공부방]-'공부방 도우미'에 안내되어 있으며, 혹시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PC 원격지원'을 통해 교육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한 통으로 고민 끝!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은 우편학습, 이러닝학습 그리고 새로 나는 성경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께 열려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이런 걸 문의 해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연락하세요. 과제가 밀렸거나 휴학이나 재등록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하는 등의 행정 관련 문제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 통화가 어려우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습의 Tip을 들으니 안심되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듯 통신성서공부는 교육원과 개별동반자가 동행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빛을 얻고 하느님 안에서 더 깊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홈페이지 <http://uus.pauline.or.kr>

우편학습 02) 944-0819~0824 uus@pauline.or.kr

이러닝학습 02) 944-0840~0843 e-learning@pauline.or.kr

새로 나는 성경공부 02) 944-0968~0969 seronab@pauline.or.kr

고통 속에서 피어난 신앙

- 신앙의 인간 요셉*을 읽고



박주경(아가다) · 1학년

나는 일찍 세례를 받았지만 결혼 후 이십여 년간
하느님을 잊고 살아왔다. 하느님을 잊고 살아온 나
는 요셉처럼, 비참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만 좇으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지는 못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
뿍 받고 자란 요셉이 갑자기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또 죄인의 처지에까지 떨어지는 운명을 맞
이했듯이 나의 평온하던 삶도, 감기 한번 앓지 않고
건강하던 남편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종양이
발견되면서 서서히 힘겨워지기 시작했다. 첨단 의학도 아무런 소용이 없자 나는
그때서야 잊고 있던 하느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남
편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느님은 나를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남편
을 통해 요셉처럼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의식을 잃은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갔다.
대형 응급 수술을 일곱 차례나 받았지만 피 말리는 긴 기다림 끝에 들은 것은 남
편의 소생을 위해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사의 말뿐이었다. 남편은 소위 말

* 송봉모, 「신앙의 인간 요셉」, 바오로딸.

하는 코마 상태(식물 인간)로 기계에만 의존하며 중환자실의 저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중환자실의 모니터에 새겨진 숫자의 깜박임이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의 전부였다.

나는 남편의 삶을 조금이나마 되돌리고 싶었다. 아이들의 자상한 아버지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어도 그저 살아만 있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뒤늦게야 눈물을 쏟으며 하느님께 달려가 참회하며 매달렸다. 남편이 받고 있는 고통의 보속을 통해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겸손치 못한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목숨을 담보로라도 남편을 살리고 싶어 하느님께 발버둥치며 매달렸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맡겼다. 하느님은 자애로우신 분이러 내 기도에 응답을 보여주셨다. 그 많은 수술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과 내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고 의지하며 맡긴 순간, 우리 가족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희망을 주시기 시작하였다. 중환자실에서 78일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뜬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부터 가슴, 팔까지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줄들도 하나둘씩 제거되었다. 움직일 수 없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손도 움직이고 아직 말은 할 수 없어도 목소리 대신 표정으로, 눈으로 말해주기 시작하였다. 남편의 깨어남은 하느님께서 주신 기적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12개월간의 끈질긴 기도와 투병 끝에 남편은 퇴원을 했다. 과학만을 고집하던 의사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의 퇴원을 기쁨으로 함께해 주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남은 삶이 40년이라면, 남편과 똑같이 나누어 함께 살다 함께 하느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나의 욕심이었다. 남편(모세)은 퇴원 후 마비된 몸으로 일 년 동안 건강이 좋은 날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여 성당에 가서 미사도 참례하고 기도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을 증거하였고 자식과 나에게는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었다. 남편 모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내가 잊고 있던 주님을 찾게 해주었고 마비로 자신의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시력을 잃어가는 눈으로도 자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목주를 놓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보속을 다 보여주고 갔다.

사랑하는 남편은 발병 후 2년 동안, 퇴원 후 1년 동안 병마를 이긴 기적을 보여주다가 하느님께 돌아갔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이 리포트를 쓰는 중에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이 흐른다. 남편이 병마와 싸우는 힘든 시간 동안 믿음이 없던 아이들도 스스로 교리를 받고 두 아이가 라파엘과 그라시아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금도 성령에 힘입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남편 모세를 통해 이렇듯 우리 가족에게 많은 은총을 주셨다.

지금도 무의식 상태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남편의 말이 가끔씩 생각난다. 매일 드리는 묵주기도를 남편의 영혼이 듣고 있으리라 믿는다. 신앙이란 쇠가 영혼 안에 박히듯이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신앙은 무조건 감미롭고, 아름답고, 천상만을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안다. 신앙은 순탄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굳세어지는 것임을 사랑하는 남편 모세를 통해 배우고 느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것이 하느님을 다시 찾는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한 것은 우리도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고통스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해도 하느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하느님을 잊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며 하느님과 함께 꾸준히 나아가는 삶,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승리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웠다.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

- 광야에 선 인간*을 읽고



김봉수(바오로)·3학년



광야는 버려진 땅이다. 황량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는 곳이다. 마실 물, 뜨거운 태양을 피할 나무 그늘, 먹을 것이 없고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삶을 위협하는 곳이다.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친 땅이다. 광야의 삶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느님께 반항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단식 기도하며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셨다.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생명과 한계성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실존적 광야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나만의 광야를 가지고 있다. 자식 걱정, 배우자와의 관계, 미움, 경쟁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열등감 등은 참자유를 위해 들여다 봐야 할 나만의 광야이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광야이다. 별거벗은 모습으로 내 광야를 바라볼 때 광야를 형성하는 정체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된다.

광야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탈출 이후에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이집트 문화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온전

* 송봉모, 「광야에 선 인간」, 바오로딸.

히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정화의 과정이 필요했다. 광야는 생의 우선순위를 보여 주는 곳이다. 생의 모든 조건이 말살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하느님을 따라야만 한다. 광야는 고통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보살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현재의 고통에 불평만 한다면 죽음밖에는 맞을 것이 없다.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보살핌을 볼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70년을 넘게 살면서 나는 일찍이 광야에 서본 적이 없었다. 철들기 전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개신교)에 다니다곤 했지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다. 가난을 탓하고 외모가 남만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출세해서 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고 열심히 뛰었다. 그러나 절대 빈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을 때 신앙심 깊은 전처를 만나 허황된 꿈을 접고 본업인 교직에 충실하려고 애썼다. 행복도 잠시, 교감 승진시험 준비를 하는 나를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아내는 서른일곱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내 곁을 떠났고 이어서 큰아들이 몹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들보가 무너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읊기를 읽고 또 읽었다. 하느님께서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미카엘 천사(현재의 처 미카엘라)를 보내주셔서 쓰러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 늦게 시작했지만 남들보다 먼저 교장 승진도 했다. 무사히 정년을 맞아 미뤄놓은 일들을 하려고 했다. 향토사 연구회, 문화재 답사회, 사진 동호회 등에 가입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보람을 찾고 있었다. 2012년 9월, 면지(面誌) 집필을 위한 취재로 과로한 나머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 감각신경은 마비가 되었지만 다행히 운동신경은 일부가 남아있어 이렇게 글 쓰고 농사일과 전원 가꾸기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다.

병상에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흰옷 입은 분 7-8명이 내 병상을 둘러싸고 “바쁜 일도 없는데 천천히 가라. 가끔은 쉬면서 주위도 둘러보고 가라”고 하였다. ‘아, 이게 환시란 것인가 보구나.’ 나는 병상에 앉아 그 말을 적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퇴직 후 내가 살아온 길은 어떤 길이었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없어지고 말 것들에 정성을 쏟은 것이었다. 나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문화

단체 일에서 손을 떼고 본당 사목회장직도 사임하였다. 본당 신부님과 상의해서 통신성서교육원에 등록해 하느님 말씀을 2년간 열심히 공부했다. 금년 2월에 수료하고 현재 구약중급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성적표를 신부님께서 보시고 “이런 성적은 처음 봅니다” 하고 본당 신자들 앞에서 칭찬해 주셨다.

하루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꽃동네회, 성심학교(농아), 성모학교(맹아)에도 조금씩 후원하고 있다. 성모꽃마을(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시설), 군중 사목회에도 조금이지만 후원하고 있다. 탈퇴한 빈첸시오회에도 재가입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금 나는 뇌졸중을 앓기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느님께서 내게 세상의 것들을 털어버리고 하느님 뜻에 따라 살라고 뇌졸중이라는 십자가를 안겨주신 것 같다.

그렇다! 나를 돌아보게 해주신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하느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운동신경을 남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한다. 뇌졸중은 내게 나를 돌아보게 한 광야였다. 하느님께서 내게 안겨주신 십자가를 소중히 보듬어 안고 나는 하느님을 향한 자유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숨은 공로자

○ 졸업생 평가자 모임

4월 22일 수요일, 이번 졸업생 평가자 모임은 4월 성바로팔수도회에서 주최하는 ‘바로팔 문화마당’에 참석하여 강의를 듣도록 마련했습니다. 강의주제는 ‘외경을 알면 성경이 바로 보인다!’였습니다. 모임이 평일이라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오신 분들은 문화마당 1시간 전에 평가자 모임을 통해 교육원의 정보를 나누고, 평가자들의 체험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신학교 평가자 모임

신학교 평가자 모임은 3월 11일 인천신학교를 시작으로 서울신학교(13일), 부산신학교(16일), 대구신학교(17일), 광주신학교(24일)에서 가졌습니다.

통신성서 우편학습을 평가하는 신학생들과 부제님들을 직접 만나,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위해서 교육원에서 부탁하는 말씀을 드렸고, 준비해 간 간식으로 함께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인천 모임을 마치고 나오다 멈춰 서서 인증샷!

대구신학교는 부제님들이 모두 참



서울 인증샷을 깜빡 잊고 왔더니 스스로들 멋진 꽃들을 배경으로~



부산 적은 수로 힘을 합치며^^



대구 모두들 같은 포즈를 잡으며~



광주 햇살이 드는 오후에 한 컷^^

석해 부제님 반과 학사님 반으로 나누어 만났습니다. 학사님들에게는 평가안내를, 부제님들에게는 평가하면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평가의 경험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육원 차원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사목자로서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서울, 인천과 광주신학교는 여러 사정으로 불참자가 있어 처음 평가를 하는 학사님들 위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평가를 하시던 학사님들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신 줄만 알았더니 학생들의 삶의 나눔과 공부하는 모습에서 많은 힘을 받고 성소를 지키게까지 되었다는 표현을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키우면서 살게 되나 봅니다.

학생이 평가자에게

+ 찬미 예수님!

먼저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평가자님의 정성 어린 채점과 편지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답변을 작성하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쓴 것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었는데 평가자님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성경공부가 조금 더 풍요로워진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하느님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안젤라(안젤라)·1학년

평가자가 학생에게

이 안젤라 자매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문밖을 나서면 화향(花香)이 카페의 커피향보다 진하게 느껴져 절로 하늘을 바라보고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되는 나날입니다. 물론 이번 2과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자매님의 삶 또한 말씀을 새기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치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늘 성실한 문제풀이와 진솔한 답변들을 나눠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매님의 답안을 읽으면서 믿음과 인내를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나무에 비유하지요.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 신앙의 바탕이자 근본이기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하면 할수록 나무가 풍파에 쉽게 견디듯 우리 믿음 또한 그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믿음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어로 인내는 ‘아

래에서 버티어 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심이 어떨 지요? 인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버티어 내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으로 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망치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몸을 숙여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을 필요로 하지요.

또한 인내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없이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요구되는데 이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거라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과 인내는 서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통해서 배운 믿음의 조상들도 단순히 강한 믿음만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허황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현실적 위기가 지나기까지 이를 견디어 내는 인내를 그 누구보다 발휘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유혹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즉시 믿음으로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순간 버티어 내는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이겠지요. 세상의 유혹은 점점 더 섬세하고 복잡하고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때 두 눈을 감고 일단 몸을 움츠리고 한번 버티보는 것이 어떨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 제가 당신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세요. 제가 이 위기를 넘겨 당신과 좀 더 가까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말이죠.

오늘을 하느님과 함께 사는 자매님의 삶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유혹을 이겨 내는 인내로써 한층 더 성장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고 십자가의 성요한 평가자

학생이 평가자에게

횡설수설, 엉망진창이지만 마음 안에 기쁨, 평화, 행복을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니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해성사 겸 이 문제집을 마무리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납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사도 바오로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며 기도하며 선교하며 살아 가셨는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가슴 벅차게 우렁찬 목소리로 내 귀를 울려주시는 바오로 사도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기쁨과 설렘 속에서 이러저러한 결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싫어지고 혐오스러웠는데 바오로서간을 공부하면서 다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무너지지 말고 정성껏 공들여 쌓아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제 새로 오픈한 가게 영업시간이 끝나면 식당으로 가서 일해야 합니다. 식당은 오후 9시에 끝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오후 10시입니다. 처한 환경에서 어디 한번 이겨내 보렵니다. 육신의 피곤함도 뛰어넘어 보고 이제 다시 새벽시간의 고요 속에서 사람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하시는 주님과의 데이트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직 실천은 안 했으나 이런 계획을 심어주시고 의욕을 심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문제집 때문에 제가 새로 살아난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이미애(비비안나)·6학년

평가자가 학생에게

비비안나 자매님!

더욱 정성스럽고 또박또박하게 열심과 기쁨으로 공부하신 답지를 받아보면서 주님께서 비비안나 자매님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심을 느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업무와 빠빠한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의 힘이려 여겨집니다. 기도모임과 성당과 직장, 가정생활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권고하

고 염려하며 모범을 보여주신 말씀처럼, 현세적인 것과 반 그리스도적인 현상들에 현혹되지 않고 변별력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과 자유를 살아가며 영육간의 건강이 충만하시도록 주님의 강복을 청합니다. 행복하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강 아나뵤 평가자

학생이 평가자에게

아름다운 꽃이 지더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신록이 성큼 다가왔군요! 신 요셉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가면을 쓰지 않고도 순간순간 재창조되는 우리의 모습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다고 단언함으로써 정직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단한 가면을 쓰게 하고 내게 부여된 가능성을 하나하나 닫게 하는 주범이 나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이 열등의식과 원망을 가뿐히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덕의 완성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 모상이 숨겨진 보석일까요? 평가자님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진리에의 여정에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강기식(아우구스티노)·3학년

평가자가 학생에게

강기식 아우구스티노 형제님께

다시 한 달 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형제님^^

이번 호는 분량도 많을뿐더러 내용도 쉽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창조”에 대한 부분, 성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큰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엔 지어낼 때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끝없이 약속을 하시고, 지켜보시고... 한

개인, 한 민족, 전 인류를 굽어보시는 그분의 사랑에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함께한 이번 한 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마찬가지로 하느님 안에서 창조된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 요셉 평가자

학생이 평가자에게

찬미 예수님, 성모님, 성 요셉!

평가자님, 8월 5일 밤, 갑작스레 여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던 동생이 마음과 정신이 여린 조카만 남겨두고 떠나가서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잡고 저희 부부가 맡아 돌보기로 한 조카 일에만 전념하며 희망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이별이지만 참으로 힘든 시간이네요.

제 동생 '최유진 마리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조카 성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최유순(가브리엘라)·성바로 신학영성 2학년

평가자가 학생에게

주님 님은 가을 향기 같은 최 가브리엘라 자매님께

먼저 하느님의 품에 안기셨을 동생 최유진 마리아 자매님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어린 조카 성준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신 형제님과 자매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6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자매님의 이야기를 자꾸 곱씹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바오로 사도였지만 늘 주님의 현존을 믿고 체험하며, 그 고난을 주님께 대

한 사랑과 감사로 승화시켜 풍성한 열매를 맺었듯이 가브리엘라 자매님도 그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삶, 자신보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마음을 여는 삶, 그리고 자연스레 감사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오로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주님은 두 분과 성준이를 축복하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필리 4.4,6)라는 말씀이 이뤄질 것이라 믿으며 미약한 저의 기도를 보탭니다.

나의 사랑 주님,
하루를 시작하려 문득 올려다본 하늘.
푸르고 맑은 사랑을 가득 담은 가을 하늘이 당신을 닮았네요.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워 제 마음은 당신의 향기로 가득 찹니다.

하늘이 어디에나 있듯
당신도 어디에나 사랑을 주며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꽃에도, 바람에도, 나무에도 당신의 숨결이 가득 담겨있다는 것을...
가을 햇살을 타고 내려오시는 따스한 사랑이 제 마음을 비춰주시니
햇살을 쬐듯 당신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에 가득 담아보렵니다.

가을바람을 맞으며 당신의 향기를 맡아봅니다.
맑고 파란 하늘빛 향기를 통해 당신이 주신 기쁨을 마셔봅니다.
살랑대는 꽃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당신의 미소를 그려봅니다.
하늘 사랑 받고 자란 나무들의 행복을 보며 당신의 자비를 느껴봅니다.
새들의 맑은 노랫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속삭임을 들어봅니다.
가을 향기 안에 깃든 자연의 아름다움이 당신을 닮듯

저도 당신의 사랑을 닮아가 모든 이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최 가브리엘라의 가정과 어린 성준이를 돌보아 주시고,
하늘에 머물고 있는 동생 최 마리아를 꼭 안아주소서. 아멘.

김 베드로 평가자



어느 평가자가 학생에게 보내는 나눔터의 작품^^~

너와 내가 만나는 곳, 연 수 회

〈구약입문 2학기 연수회〉

2015년 1월 10~11일, 구약입문 2학기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연수회의 예언서 강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계시는 송재준 신부님께서 해주셨고 멀리 미국 워싱턴에서 오신 자매님을 비롯해 졸업생 평가자도 함께한 연수회였습니다. 쉬는 시간엔 통서가족 회장님과 임원진분이 통서가족모임과 카페 소개를 하러 오시면서 맛난 방울토마토와 바나나를 들고 오셔서 든든한 선배에, 넉넉한 간식으로 마냥 행복해진 학생들^^ 마지막 날 영성체 후에는 성바로 딸수도회 지원자 3명의 찬양올동으로 연수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감동! 감동!



〈신약입문 2학기 연수회〉

2015년 1월 31일~2월 1일, 신약입문 2학기 연수회(허규 신부님, 4복음서)가 있었습니다. 작년 구약입문 연수회를 통해 신부님과의 친분을 가졌던 학생들은 이번 연수회에서 또 만난 상황이라 연수회 내내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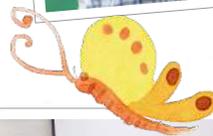
〈성바로 신학영성 수료연수회〉

2015년 2월 7일, 성바로 신학영성 수료연수회는 '히브리서 안에서의 바오로 영성'에 대한 강의로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이진수 신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무리하는 기간이라 다들 진지했고 23년 만의 긴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바오로 영성까지 수료하신 한 형제님의 모습에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8년간의 통신성서과정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 긴 세월 속에 다들 애써온 학생들의 노고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중급 연수회〉

2015년 7월 4~5일에는 구약중급 연수회(서동원 신부님, 모세오경)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강의는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해 신앙상담과 고해성사의 분위기로 이어져 갔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주장하며 고집스럽게 가족을 대하던 어떤 학생분들은 자신들의 강함 때문에 상처 입었을 가족과 형제들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신앙고백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약중급 연수회〉

2015년 7월 11~12일, 신약중급 연수회(남재현 신부님,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가 있었습니다. 연수회 장소인 마리스타 교육관은 여러 명이 함께 합숙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절두산을 끼고 있는 거룩한 성지라서 그런지 다들 서로에 대한 배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며 마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입문 1학기 연수회>

2015년 7월 25~26일에는 구약입문 1학기 연수회(염철호 신부님, 모세오경)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회 학생들은 태풍이 부는데도 모두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주었고 첫 연수회라 그런지 말씀을 배우겠다는 의지도 대~단~했습니다. 세 팀의 부부 학생들을 비롯해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하신 청도본당의 김지현 요한 신부님께서 보내온 본당 신자들, 열심히 강의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로 연수회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헤어질 때는 서로 아쉬워하며 다음 연수회를 기약했습니다.



〈신약입문 1학기 연수회〉

2015년 7월 18~19일 신약입문 1학기 연수회는 의정부교구 김효준 신부님께서 바오로서간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사제 피정 중이셨고 게다가 장염까지 걸린 상황인데도 학생들을 위해 중간에 나오셔서 온 힘을 다해 강의를 해주셨지요. 이런 열정적인 신부님과 언제나처럼 진솔하게 서로의 삶을 나누는 학생들이 있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수회 또한 성바오로 딸수도회 청원자 자매들의 영성체 후 찬양운동으로 모두들 행복^^*~



〈성바로로 신학영성 연수회〉

2015년의 마지막 연수회인 성바로로 신학영성 연수회(박기석 신부님, 콜로새서와 에페소서에 드러난 바오로의 영적 삶)가 9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연수회여서인지 너무 섭섭하다며 아쉬움을 표현해 주시던 영성 2학년 학생분들, 다음의 만남을 약속하며 떠나가던 영성 1학년 학생분들, 맛있는 점심식사로 행복해지셨다는 학생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연수회 참석 소감



라뜰하고 재미난 강의 감사합니다. 다른 연수회랑 비교하면 태도 없이 좋아요 ^^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앞으로의 삶에서도 신바람 나게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 놀라운 학생들의 열의여... 오! 아름다운 감사 신부님의 열정이여... 이 모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구슬을 줄에 꿰어놓은 느낌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고 듣고. 감사합니다.



입을 탈돌하여 피정하는 마음으로 평온하고 재미있게 보내고 갑니다. 열심히 살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의 명강의가 일품이었어요 ~ 짬뽕, 가끔 저도 모르게 뇌사 상태가 왔지만 다시 또 듣고 싶습니다. 이제 가족처럼 느껴지는 교우(?)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통서의 꿀 '누녀님'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합니다.



음식도 맛있고 말씀도 꿀만 같고, 님 ♥ 받는 느낌, 행복해요. 감사해요~



혼자 하는 공부보다 연수를 통해서 신부님 강의를 통해 마무리하고 정리되는 건 같아서 좋았어요. 누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사도 맛있고 영화도 좋았어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강의 너무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신부님, 누녀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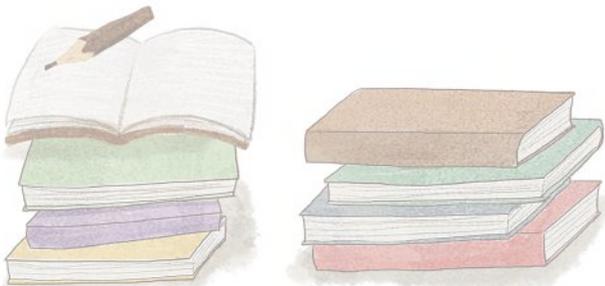
못다 한 교육원 이야기

○ 2015년 장학생 현황

구약입문 공부를 신청하시며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느냐는 학생. 그래서 저희들은 기꺼이 공부하도록 해드렸지요. 그런데 “수녀님, 세상에 살 때는 성경은 언제나 끝자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곳에 들어와서 보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린 기억이 납니다.

올 한 해도 연수회 파견미사 봉헌금과 전국 바오로딸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전국 교도소에 계신 형제자매님이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공부를 통해 삶의 궁극적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분	교도소 교도관	재소자 장학생	일반 장학생
인원	19	47	6



교육원으로 온 편지

부활의 선물, 주님의 평화가 성바오로딸 수녀님들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 우리 형제님들 답안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수녀님들을 덜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 평가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렇게 여러 명의 평가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 고맙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어린 새싹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여기저기에서 인사를 합니다. 가던 길 멈추고 저도 반갑다 인사 나누어 봅니다.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다가 비움이라는 모습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다시 거듭해서 나는 풀과 나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매번 제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이들처럼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저희 봉사자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어느 날 아침 하우스에 들어가 보니 난로 옆에 닭 한 마리가 누워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가 형제님께 물어보니 닭장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죽은 듯이 쪽 뻗어있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난로 옆으로 데려와 연신 주물러 주고 만져주었더니 조금씩 숨을 쉬긴 하는데 살긴 하려나 시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하면 그냥 묻어주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나가십니다. 모두가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 세상에 이럴 수가! 뻗뻗하게 죽은 듯이 누워있던 닭이 박스에 간신히 기대어 서있는 것이 아닙니까! 눈도 뜨지 못한 채, 그것도 한쪽 발로만 일어나지 못하면 땅에 묻어주어야겠다는 소리를 들은 것인지 쓰러질 듯하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 서있습니다. 형제님이 '살려나 보다고, 기특하다고' 하며 쓰다듬어 줍니다. 서너 시간이 흐른 후에는 눈을 뜨고 꺾꺾꺾하기에 물을 갖다 주었더니 정신없이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날은 절뚝거리며 걸어 다니기까지 합니다. 먹고, 설사하고, 먹고, 설사하고를 반복하더니 그이튿날은 정상적으로 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살이 통통하게 찼고 털에서 윤기도 납니다. 자기를 살려준 형제님을 신기하게 알아보기도 합니다. 형

제님이 닭장에 들어가면 줄줄 따라다니기도 하고 며칠째 닭장에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형제님이 심심할까 봐 옆으로 와 꼬꼬거리며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저 닭 때문에 심심하지 않다고, 살아주어서 고맙고 참 예쁘다고 칭찬을 끊임없이 하시네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바로 땅에 묻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성을 다해 간호해 준 형제님의 따뜻한 마음이 참 감동적입니다. 언제나 배려라는 예쁜 마음으로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도 감동을 주시는데 말 못하는 짐승에게 까지도 지극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네요. ^^*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픔에(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죽은 듯이 누워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용기를 내어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 집 닭은 주인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저도 저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만나서 그 뒤를 따를 수 있어 행복하고 또 예수님과 언제든지 눈 마주치며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

수녀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수녀님들의 수고에 고마운 마음 전해드리며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박미숙(마지아) 수녀 드림



이제 4학년 2학기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다가 먼저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성경공부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과정을 공부할 때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이 다른 지역의 설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이며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

들도 있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많은 혼란을 느꼈고 이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아량보다는 가차 없는 처벌을 내리시는 등 하느님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랑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묘사되는 구약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말 안 듣고 불평불만만 하며 자기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듯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음을 발견했습니다. 꾸짖고 혼내주실지언정 끝내 내치지 않으시고 인생 고비고비에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확신을 구약을 공부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저의 성경공부에서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같은 죄를 반복하고 나약하며 쉽게 좌절하는 것이 또 저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느끼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우리 수녀님들과 교육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보고 들으면서 그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이러닝의 큰 장점인 1:1 튜터 제도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음을 고백하며 함께해 주신 튜터님들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특별히 자칭 '용팔이' 체칠리아 수녀님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스승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정성스러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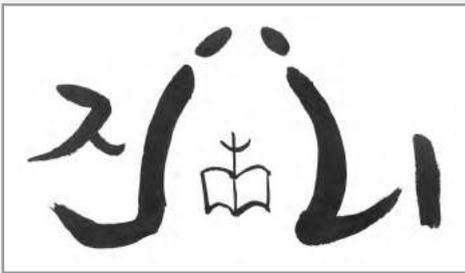
항상 밤늦은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도 얼굴은 모르지만 같은 4학년 동기들도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희 4학년 이러닝 가족 모두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심터 나눔글/윤성준(안드레아) · 이러닝학습 5학년

♥ 알콩달콩 이야기

- ♥ 2015년 새롭게 교육원 가족이 되신 박 고로나 수녀님이 서예가(캘리그래퍼) 서하영 님의 서체를 따라 한지에 먹으로 쓰신 글씨가 멋져 한 컷~
그 글씨를 받고 학생이 써주신 나눔터 글 한 컷~ ^^



안녕하세요? 평가자님! 4과 평가를 100점으로 평해주시고
달솜을 가운데 놓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의 '진리' 라는 글 보내주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정면 벽에 붙여놓고 남편
과 함께 생긱이 웃곤합니다. 안그래도 문제 작성을 하면서 힘들고
회의도 생겨 해낼수 있을까? 했는데 어렵사리 해결하여 마감날짜를
남겨서라도 제출할수 있음에 평가자님과 함께 많은분들의 기도가
딱딱 전해집을 또한 느낄수 있었습니다. 자꾸만 주저앉으려는
무력함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짝막한 교육원 직원들 이야기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분들을 존경합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싶다.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의 말씀까지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 안에서 하루를 봉헌하며 지내시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존경스럽게 느껴진다.

언젠가 나 또한 주님의 손을 잡으려 한 발짝 다가섰지만 좀처럼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때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림자라도 쫓아가려 노력하니 하느님께서서는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옆에서 나란히 함께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학생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하루하루 기도로 응원한다.

◆ 이혜진(울리아나)·우편학습 입문 담당

문득 이 생각만 하면 얼굴이 나도 모르게 붉어진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연수회 도우미로 참석하였다. 100여 명이 넘는 학생분들께서는 강의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저장하시려는 듯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학생분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알아가며,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파견 미사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학생분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이어졌다.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손을 내어주시며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듯했고, 그 말씀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본 어느 자매님께서 화장지를 주셨을 때는 그분이 주님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주님께서는 내 가슴속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계시고 당신을 알게 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 최명선(그라시아)·우편학습 중급 담당

교육원의 1년은 언제나 새로운 학생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설렘으로 시작한다.

보내주시는 문제집에 적힌 학생분들의 이름이 낯익어지고 나중에는 익숙해져 반가워지기까지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 어느덧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건 포기해도 성경공부는 끝까지 하려 한다는 어떤 학생분을 통해 말씀에 대한 깊은 열정을 느낀 일도 있었고 간단한 문의사항에 답해드린 것밖에 없는데도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셔서 몸 둘 바를 모르던 기억도 난다. 학생 한 분 한 분을 뵈 수는 없지만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셔서, 그리고 힘이 되어주셔서 2015년 참 행복했고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

❁ 진효진(울리아나)·우편학습 바오로 영성 담당

“성경공부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의 힘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 학생들의 나눔터나 리포트에서 자주 보게 되는 표현들이다. 처음에는 너무 진부해서 가슴에 확 와 닿지 않았다. 한데 계속해서 학생들의 글을 읽다 보니 그것이 단지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고통스런 체험 끝

에 배어나온 진심 어린 글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차츰 ‘이분들을 움직이게 한 하나님의 힘은 무엇일까?’, ‘이분들이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였기에 이렇게 바쁜 중에도 성경공부책을 파고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꾸 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문제집을 마주 대할 때마다 그 문제집들이 멘토가 되어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 장수정(마리아)·교재 연구 담당

동영상 강의로 공부하는 ‘이러닝학습’이 과연, 인터넷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어르신들의 연령도 초월할 수 있을까? 인터넷상에서 시험도 치러야 하는데, 학사일정을 따라갈 수 있으시려나…

학기 초에 연세 드신 분들의 문의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걱정에 빠지곤 한다. 마치 예수님께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라는 말씀을 들은 ‘마르타’처럼 말이다.

올해 1학기를 이수하고 2학기를 등록한 학생 중에서 70대 이상은 열 분가량이다. 그중에는 팔순을 앞둔 분들도 계시니 이 정도면 ‘연령을 초월한 성경공부’라는 통신성서 소개 문구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등록된 분들이 거의 그대로 이수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이수 비율이 청년과 중·장년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생소한 문화인 인터넷을 배워가면서, 말씀을 향한 충실함의 본모기를 보여주시는 어르신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린다.

◆ 이효진(베로니카)·이러닝학습 업무 담당

공부에 도움이 될 매체를 소개합니다

■ 성경 속 하느님 생각 | 민남현 | 바오로딸



저자가 제시한 ‘하느님 생각’이란 말은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하느님을 생각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생각’이다. 전자는 생각의 주체가 인간이고 하느님은 생각의 대상인 데 비해 후자는 하느님이 주체이고 인간은 그분 생각의 대상이 된다. 구약성경에 담긴 에피소드를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찾고 하느님의 생각을 밝혀내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빛을 받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의 매듭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저자의 소박한 꿈이 담긴 이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마땅한 고민이고 숙제일 것이다.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제목 하에 저자 자신이 경험한 일들, 깨달은 바를 솔직하게 다소 비판적인 안목으로 이야기한다.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저자의 안내를 따라 성경 속 사건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직하신 꿈에서 얼마나 멀리 와있는지를 알게 된다. 오래전, 저 떠나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오늘,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비취주고 재촉하는 것이다.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인 비춤이라 놀랍기도 하다.

또한 관계라는 주제를 필두로 하여 연대 의식, 우상숭배, 빛과 어두움, 하느님의 현존, 부르심, 정의와 불의 그리고 회개라는 주제 아래 구약성경을 살펴본다. 결국 하느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얽히고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느님의 간절한 염원이 회개를 요청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진다.

개인의 삶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 책임을 갖고 헌신하도록 성경 속 하느님의 생각이 우리를 재촉한다.

■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요한복음산책3) | 송봉모 | 바오로딸**



〈요한복음산책〉 셋째 책으로 요한복음 8—12장을 다룬다. 삶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빛이신 주님께 돌아가는 것밖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준다.

■ **시편 1—41편(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 23-1) | 전봉순 | 바오로딸**



하느님 백성의 기도이며, 그리스도교회의 기도인 시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시편 1—41편은 간결하지만 핵심을 짚어주고 교부들의 가르침도 충실히 반영하여, 신자들이 시편기도에 맛 들이고 그 깨달음과 기쁨을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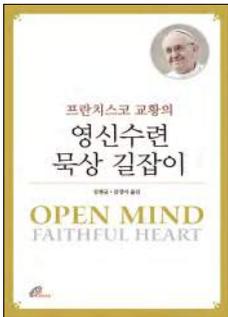
■ 용서가 어려울 때 | R. 스콧 허드 | 신현숙 | 바오로딸



진정한 용서를 원하지만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보다 먼저 “용서의 여행”을 가본 사람들의 풍부하고도 감동적인 체험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와 도움을 받게 해주는 책!

「용서가 어려울 때」는, 저자가 사제로서 사목적·성경적·가톨릭적 관점에서 용서 문제를 살펴본 뛰어난 저술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한다. 이 책에는 수많은 용서의 사례들과 동서고금의 주옥같은 명언들이 소개되어 용서의 힘든 과정과 아름다운 결과들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신수련 묵상 길잡이 | 교황 프란치스코 | 김현균·김정아 | 바오로딸



교황 되기 전 추기경 시절, 사제와 수도자 대상 피정에서 한 강의를 모아 엮었다. 각 주제가 끝날 때마다 ‘기도와 묵상’ 부분에 성경 말씀, 시, 찬가 등이 실려있어 한 박자 쉬어가며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교황으로서 사명을 수행하시는 그분의 사상과 신앙의 뼈대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분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예수

님 사랑과 십자가를 향한 헌신이 이 글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예수회 관구장 정제천 신부의 추천 글 中)

발행 : 2015년 11월 30일
펴낸데 :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01166 서울 강북구 오현로7길 34
등록 제7-123호 1994. 3. 30
전화 : 02)944-0819~0824 FAX 987-5275
이메일 : uus@pauline.or.kr
홈페이지 : <http://uus.pauline.or.kr>
카페 : <http://cafe.daum.net/junim510>

이 책은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회지이며 비매품입니다.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통신성서

신학기
학생모집
11.1 다음 해 — 1.25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17,21)

성경 말씀을...



매월 교재학습을 통한 **'우편학습'**과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진 **'이러닝학습'**으로 쉽고 편하게...

입학안내

- 제출서류 : 입학원서
- 원서접수 : 매년 11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원서배부 :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서원 및 교육원 홈페이지
- 접수처 : 서울 강북구 오현로 7길 34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 등록혜택 : 우편학습·이러닝학습 가족(부부, 자매, 형제) 2인 이상 등록 시 등록금 20% 할인혜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타증빙서류 첨부)
- 홈페이지 : uus.pauline.or.kr (인터넷 접수)

교육과정

- 입문과정 _ 신·구약(2년)**
체계적인 성경공부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바탕을 둔 기초과정
- 중급과정 _ 신·구약(4년)**
보다 깊이 있게 성경공부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심화과정
- 성바오로 신학영성과정 _ (2년)**
성바오로의 영성을 기도하도록 이끌어주는 과정

학습안내

- 우편학습** _ 우편을 통한 문답식 학습 교재학습 및 문제집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
- 이러닝학습** _ 온라인을 통한 학습 동영상 강의와 강의자료를 통한 온라인 교육 ▶ 우편학습, 이러닝학습 중 선택
- 새로나는 성경공부** _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공부

입학문의

우편 학습	02) 944-0819~0824 uus@pauline.or.kr	이러닝 학습	02) 944-0840~0843 e-learning@pauline.or.kr	새로나는 성경공부	02) 944-0968~0969 seronab@pauline.or.kr
-------	--	--------	---	-----------	--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